16일 Market Index
코스피 5100.50 (-190.03)
코스닥 665.65 (-34.01)
금리(국고채 3년) 3.743 (-0.016)
환율(원·달러) 1335.7 (-1.0)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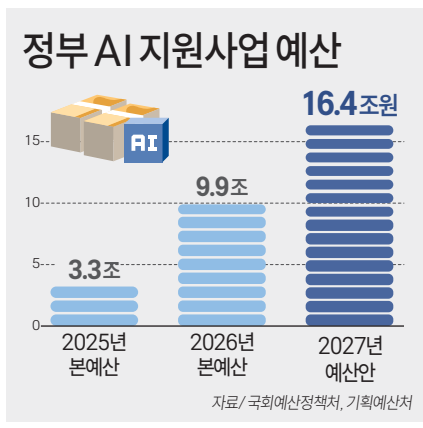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정부서 GPU 확보, 9.9조 투입… AI 고속道 깐다

AI 3강으로 가는 길

❶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연간 10조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확보하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목표 물량의 60%를 확보했고, 독자 AI 모델 개발 사업도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와 정책이 실제 기술 경쟁력과 산업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청와대·국가AI전략위·과기정통부, AI 정책 '3각 추진체계' 가동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축으로 국가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대통령의 AI 정책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범정부 정책을 조율한다. 현재 이해민 수석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초대 AI수석을 지낸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책 조정을 맡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요 AI 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는 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 AI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AI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연계하고, 주요 사업의 방향과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99개 과제에 예산 3배 늘어… 내년에도 AI분야 증액 기조

정부 AI 정책의 청사진은 올해 2월 확정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2026~2028)'에 담겼다. 행동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 아래 99개 실행과제, 326개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정책권고마다 담당 부처와 추진기한을 정해 실행력을 높였고, 이 가운데 266개는 올해 안에 추진하도록 했다. 국가AI전략위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수능 문답지 부산 도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학교에서 교육청 관계자 등이 도착한 수능 문답지를 보관장소로 옮기고 있다. 올해 부산지역 수능 응시자는 2만9181명이며, 이들은 오는 19일 64개 고사장에서 시험에 응시한다. /뉴시스

매매보다 전·월세 더 뛰었다… 서울 전세 평균 5억 돌파

부동산원, 올해 서울 전세 7.42%↑
지난해 1.92%의 네배 가까이 올라
월세 7.34% 상승, 전년의 3배 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는 물론 전세와 월세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를 앞질렀고, 월세는 그보다 더 뛰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가격은 매매 0.65%, 전세 0.68%, 월세 0.77% 올랐다. 전국(매매 0.28%·전세 0.34%·월세 0.40%)과 수도권(0.57%·0.59%·0.66%)에서도 상승률이 월세가 가장 높고, 전세가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지역이나 단지가 나오는 가운데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나타나며 서울·수도권 위주로 올랐다"며 "전·월세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을 보면 임대차 시장의 급등세가 더 뚜렷하다.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올 들어 10월까지 7.42%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92%)의 네 배 가까이 됐다. 월세도 7.34% 올라 지난해(2.21%)의 세 배를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9.03%)은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누적 상승률(8.90%)을 이미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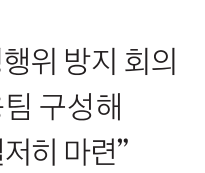
서울 매매시장은 '북고남저'다. 한강 이북 14개구는 1.04% 올랐지만 이남 11개구는 0.29%에 그쳤다. 서대문구의 상승률이 1.35%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1.34%) ▲성북구(1.29%) ▲광진구(1.29%) ▲동대문구(1.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는 한 달간 1.24% 하락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0.75%, 0.18% 내렸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올랐다.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은 0.85% 올라 아파트(0.54%)를 웃돌았다. 아파트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536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5억98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세가격이 9월(4억9769만원)보다 크게 오르며 5억원을 넘어섰다. 월세는 평균 보증금 1억4803만원에 월 134만1000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6862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6억4538만원이었다. 월세 아파트는 평균 보증금 1억9581만원에 월 168만1000원을 내야 한다. 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인 중위가격도 서울 아파트 매매 11억500만원, 전세 5억7000만원에 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수능 등 국가시험 AI 사용 부정행위 사후 조사근거 마련



정부가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응시자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공인 시험이 이미 치러진 뒤에라도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현장 적발이 안 됐더라도 사후 점검·단속을 통해 AI 기기 사용 등 부정 응시자를 추적하고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사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체계 정립에 착수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성숙 총리, 부정행위 방지 회의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 철저히 마련"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수능 관련해서는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우선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험 결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통신부에는 수능시험 시간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김연세기 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36.4%…전주 대비 0.5%p↑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안해" /사진 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안해"
▲여야, 교육위원회서 'AI 수능커닝' 한목소리 우려
▲국힘, '조작 징계' 내홍 지속…'한동훈 제명' 추가 폭로에 눈길
▲선관위특검, 검사 1명 추가 파견받아…정원에는 여전히 못 미쳐

조선 3사, 연간 수주목표 바짝… 非상선 사업 확장 '청신호'

3년치 일감 확보… 수익성 개선 박차
AI·로봇 기반 현장 생산혁신 분주
에너지인프라 등 신성장동력 확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국내 조선 3사가 연말을 앞두고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 바짝 다가섰다. 3년 치 건조 물량을 확보한 이들 기업은 중국의 추격 속에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와 비상선 신사업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생산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195척, 216억9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233억1000만달러)의 93.1%를 달성했다. 남은 16억2000만달러도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해 예년처럼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중공업은 연간 목표(139억달러)의 91%인 127억달러를 수주했다. 상선 부문은 목표(57억달러)의 146%인 83억달러, 해양 부문은 목표(82억달러)의 54%인 44억달러를 달성했다. 현재 협의 중인 미국 델핀(Delfin) 2호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계약 성사 여부가 목표 달성의 변수다.

수주 목표를 공개하지 않는 한화오션은 선박 43척과 육상 플랜트 1건 등 총 44건, 81억1000만달러를 수주해 지난해 11월 말 실적(37척, 69억7000만달러)을 넘어섰다.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윤현규 교수는 "조선사들은 건조 슬롯과 생산능력을 고려해 목표를 정하므로 달성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감을 확보한 셈"이라며 "이미 3년 치 물량을 확보했고 2007~2008년 호황 후 무리한 설비 증설로 불황을 겪은 학습 효과로 생산능력 확대와 추가 수주에 신중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조선업계가 수익성 중심의 내실을 다지는 사이 중국은 주력 선종인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까지 추격하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10월 세계 대형 LNG운반선 76척 중 한국은 44척(57.9%), 중국은 32척(42.1%)을 수주했다.

이에 조선 3사는 북미 함정·해양플랜트·에너지 인프라 등 비(非)상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로 열린 북미 함정 시장에서 한화디펜스USA는 지난달 29일 미국 TOTE Services와 중형상륙함(LSM) 1척(2억6900만달러) 건조 계약을 맺어 한화필리조선소 인수 후 첫 미 해군 함정을 수주했다. HD현대도 지난달 미국 EPC 기업 키윗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고 오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현지 조선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신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11기 중 7기(64%)를 수주해 해양플랜트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재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FLNG 3기를 동시 건조하며 설계·공정 표준화와 반복 건조로 생산 효율과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용 에너지 인프라도 3사의 공통 신성장동력이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데이터센터용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확보했고, 한화오션은 지난 9월 60MW급 부유식 데이터센터 모델을 공개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일본 모리무라와 선박·데이터센터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사업 확장과 함께 조선소 내부에서도 공간·인력 제약을 극복하고 건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로봇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신상범 상무는 "자동화율은 신설 조선소가 많은 중국이 앞서지만 숙련공의 노하우와 생산 데이터를 피지컬 AI에 접목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대형마트, '기업회생' 파장… 3분기 실적 희비

홈플러스, 영업공백… 경영상황 악화
이마트·롯데마트, 실적 상승세 뚜렷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대형마트 3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홈플러스의 영업 공백에 따른 반사이익을 흡수하며 지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반면 홈플러스는 임금 체불과 상품 공급 차질에 이어 전 점포 재휴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경영 위기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의 3분기 별도 기준 총매출은 5조10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분기 총매출이 5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1660억원으로 46.3% 늘었다. 특히 주력 사업인 할인점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할인점 영업이익은 9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6% 증가했다. 기존점 매출은 10.6% 늘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역시 총매출 1조1668억원, 영업이익 552억원으로 각각 16.6%, 40.5% 증가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롯데마트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롯데쇼핑 마트 사업부의 3분기 매출은 1조46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6억원으로 87.5% 급증했다.

국내 사업의 실적 개선 폭은 더욱 컸다. 국내 롯데마트 매출은 1조1502억원으로 16.2%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179억원으로 725.5% 증가했다. 차세대 물류 거점인 '제타 스마트센터'의 초기 운영 비용에도 기존점 매출이 18% 증가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으로 홈플러스의 경영난에 따른 경쟁 완화를 꼽는다. 성숙 산업으로 분류되는 대형마트 시장에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달성한 데는 경쟁사의 영업 공백으로 인한 고객 유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홈플러스와 상권이 겹치는 이마트 점포에서는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홈플러스 점포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이마트 영등포점과 둔산점의 매출은 각각 22%, 19% 증가했다. 롯데마트 역시 일부 점포에서 경쟁 완화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추진해 온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마트는 할인점·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의 통합 매입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가격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했다. 대형 할인행사인 '고래잇 페스타'의 3분기 매출은 29.2% 증가했으며, 초저가 자체브랜드 '5K프라이스' 매출도 두 배 이상 늘었다.

롯데마트는 식료품 중심의 점포 재편과 자체브랜드(PB) 상품 확대에 주력했다. 식품 전문 매장 '그랑그로서리'와 식료품·전문관을 결합한 '제타플렉스'를 중심으로 신선식품과 간편식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객 유입을 확대했다.

다만 양사의 실적 개선을 홈플러스 반사이익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명절 시점 차이와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석은 10월 6일로 4분기에 포함됐지만 올해는 9월 25일로 3분기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선물세트 등 명절 특수가 올해 3분기 실적에 집중적으로 반영됐다. 지난해 대형마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점도 올해 실적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반면 홈플러스의 경영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상품 공급 차질과 자금난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한 달간 전 점포의 영업을 중단했다. 8월 13일 일부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지만 고객 이탈과 상품 구색 축소가 맞물리면서 매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영업활동으로 확보한 자금을 상품 매입과 채무 변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매출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달 초에는 하루 매출이 3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부족은 상품 수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확보하고 있지만, 운영자금이 고갈되면서 추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상품 매입 물량은 재개장 초기보다 약 30%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체불도 장기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8월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지 못한 데 이어 9월과 10월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추석 상여금 지급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오는 17일 중앙위원회를 시작으로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는 상경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18일부터는 매일 청와대를 찾아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전 점포 재휴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할인 행사가 지난 7월 임시휴업 직전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전과 유사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코픽스, 두 달 연속 상승… 신규취급액 3.62%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19%포인트 상승한 3.62%를 나타냈다. /뉴시스

10월 자동차 수출 65.5억弗… 역대 최대

산업부 "조업일수 증가 등 기인"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역대 10월 기준으로 최대 실적으로 기록했다. 내수와 생산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이른바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산업통상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5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에 비해 18.1% 늘었다. 내수판매는 13만7000대, 생산량은 38만1000대로 각각 7.9%, 25.8%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30억9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9.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부품은 17억3500만 달러로 15.0% 늘어났다.

차종별 친환경차 10월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7만3445대(+72.2%), 전기차 3만1290대(+62.6%)를 기록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1670대·-32.8%)와 수소차(2대·-85.7%) 등은 줄었다. 전체 수출량은 전년대비 65.2% 증가한 10만6407대를 기록했다.

10월 친환경차의 내수 판매량은 8만5334대로 전년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3만4858대로 전년대비 판매가 81.4% 증가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만434대로 66.2% 늘었다. 하이브리드는 4만8865대로 전년대비 판매가 14.0% 증가했다. 수소차는 1만4424대로 10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 33억7600만 달러(+33.2%) ▲미국 28억5700만 달러(+34.5%) ▲유럽연합(EU) 11억8100만 달러(+58.2%)였다. 또 ▲기타 유럽 3억4300만 달러(-28.5%) ▲아시아 3억7100만 달러(-53.7%) ▲중동 4억9700만 달러(+23.8%) ▲중남미 3억6800만 달러(+27.2%) ▲오세아니아 3억4100만 달러(+37.4%) ▲아프리카 6100만 달러(+71.3%)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석연휴 이동에 따른 평균 조업일수 증가와 친환경차 SUV 차종에 대한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 등에 기인해, 역대 10월 자동차 수출실적 중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 인프라, 성과로 이어져야”… 독자기술·산업혁신 ‘관건’

›› 1면 ‘정부서 GPU 확보… ’서 계속

AI 3강으로 가는 길

내년 AI 지원 예산 16.4조 편성
독자 AI모델 최종 2개팀 연내 선정
해외 빅테크 기술 의존도 축소 추진

국가AI전략위, 7개 과제 TF 가동
제조·의료 등 산업 전반 AX 확대
예산 연계·성과 검증 등 과제 산적



생성형 AI로 만든 정부의 AI 재정투자 확대와 GPU 인프라 확충을 상징하는 이미지.

재정투자도 크게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예산처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정부 전체 AI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3조3000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AI 관련 사업도 지난해 338개에서 올해 738개로 늘었다.

증액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AI 지원 사업은 40개 부·처·청, 691개 사업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 소관이 9조4211억원으로 약 57%를 차지한다.

◆GPU ‘목표 5만장’ 중 2만1000장 확보… 최종 관문은 ‘독자 AI 모델’

핵심 사업에서도 진척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AI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GPU를 확보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까는 사업이다.

정부는 총 5만장 규모의 GPU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배 부총리가 지난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엔비디아 B200 성능 환산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 확보할 약 3만5000장 가운데 2만1000장을 확보했다. 나머지 1만4000장은 내년 초까지 입고될 예정이며, 별도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통해 1만5000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에 공급하기로 한 첨단 GPU 26만장 공급계획도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2일(현지시간)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가 엔비디아 CEO에서 사임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나왔지만, 과기정통부는 13일 엔비디아 측과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확보한 컴퓨팅 자원을 기업·대학·연구기관에 배분해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이제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2차 단계평가에서 4개 정예팀 가운데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고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 등 3개 팀이 다음 단계에 진출했다. 정부는 이 중 최종 2개 팀을 연내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산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기술을 개방해 해외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국내 기업이 자체 AI 기술을 활용할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성과 구체화 위해 ‘프로젝트 중심’ 체계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필요

정부의 AI 전략은 기술 개발을 넘어 제조·의료·국방·공공행정 등 산업과 공공부문 전반의 AI 전환(AX)으로 확대되고 있다.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국가AI전략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사이버 복원력 등 7개 국가 AI 핵심과제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이 결정됐다. 위원회는 정책 논의에 머물지 않고 TF별 목표와 성과물을 구체화하는 프로젝트 중심 체계로 운영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AI 정책이 추진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을 넘어 성과 창출 단계로 이동하면서, 실제 기술 경쟁력과 산업 현장의 변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대규모 재정투자와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곧바로 글로벌 AI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확보한 GPU가 기업과 연구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는지,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지, 산업 현장의 AI 도입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등이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 구체화와 예산 편성 사이의 시차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일부 TF의 성과물 제출 시한이 내년 3월 이후로 설정되면서, 이미 확정된 2027년도 예산에 신규 사업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부처 예산을 활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하지 않으면 정책 실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326개 정책권고의 이행 상황과 사업별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하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AI 3대 강국’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반도체주 급락이 기회?”… 개미들, ‘빚투·레버리지’ 베팅

엔비디아 급락에도 서학개미 순매수
나스닥·반도체 3배 레버리지 집중
삼전닉스 신용융자 잔액 7조 육박
증권가 목표주가 최대 30%대 하향

직장인 이모(35)씨는 올 상반기부터 반도체주를 조금씩 사들였다. 신용대출로 빌린 돈은 5000만원. 하지만 이달 급락장을 맞으며 평가손실이 1500만원이 넘는다. 이씨는 “추가 매수(물타기)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코스피가 7500선이 돼야 본전이 될 것 같은데, 내년 3월 대출 만기까지 어떻게든 버텨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혼외 관계와 상대방의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이 불거지고 동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 우려도 커졌다. 이런 가운데 서학개미(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의 2~3배 레버리지 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으며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 잔고가 7조원에 육박했다.



생성형 AI로 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앤트로픽의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미국 반도체주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를 표현한 이미지.

16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 집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지난 6~13일 사이 엔비디아 주식을 3억3433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이어 나스닥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울트라프로QQQ(TQQQ)’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SOXL)가 뒤를 이었다. 순매수 결제액은 각각 2억7164만달러, 2억3489만달러였다.

나스닥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QQQ’(QLD)도 1억9915만달러어치 사들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간첩 불륜’ 스캔들 사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등으로 따라 글로벌 반도체주와 AI관련주 전반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도 순매수세가 이어진 것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젠슨 황과 중국인 사업가 앨리스 황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3.78% 하락했다.

동학개미들의 반도체 사랑도 이어졌다.

국내 증시의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국내 신용융자 잔액의 약 3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액은 3조6157억원, SK하이닉스는 3조3183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종목의 합산 금액은 6조9340억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신용융자 잔액인 25조556억원의 27.7%에 달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로 보면 약 27.2%다.

신용융자 잔액이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인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다. 국내 투자자 ‘빚투(빚내서 투자)’의 약 28%가 두 종목에 몰렸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매수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반도체 ‘투 톱’의 주가 조정이 이어지면서 목표주가를 20~40%가량 낮춘 보고서도 쏟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5만원에서 44만원으로 32.3% 낮췄다. IBK투자증권과 iM증권도 각각 23.9%, 22.9% 내렸다. SK하이닉스 목표주가도 줄줄이 하향됐다. iM증권은 35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34.3%, 한국투자증권은 47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31.9% 낮췄다. LS증권도 33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7.3% 내렸다.

개인투자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낮추면서도 대체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판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00~2024년 국내 증권사 43곳의 투자 의견 보고서 73만5162건을 분석한 결과, ‘매수’가 78.17%로 가장 많았다. ‘적극 매수’는 0.66%, ‘보유’는 20.31%였다. 2015~2024년으로 좁히면 ‘매수’와 ‘적극 매수’의 합산 비율은 91.17%에 달했다. 같은 기간 ‘매도’는 0.14%에 그쳤고, ‘적극 매도’는 한 건도 없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

신유열, 2년 만에 사장 승진… 롯데, 경영체제 개편

미래성장실 확대해 중장기 전략 수립
롯데지주, 노준형 중심 의사결정 통합
마트·슈퍼 등 분리해 독립경영 강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사진)이 사장으로 승진해 그룹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총괄한다. 롯데그룹은 기존 미래성장실을 경영전략실로 확대 개편해 신 사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롯데지주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일원화하고 주요 계열사의 사업부별 독립경영을 확대한다.

롯데그룹은 16일 롯데지주를 포함한 30개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신 사장의 경영 보폭 확대다. 2024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신 사장은 2년 만에 사장단에 합류하면서 신설되는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을 맡게 됐다.

경영전략실은 기존 미래성장실의 신사업 및 글로벌 사업 추진 업무에 그룹 중장기 전략 수립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기능을 더한 조직이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미래 신사업 발굴을 넘어 그룹 전체의 사업구조 재편과 성장전략 수립에 관여하게 된다.

신 사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도 계속 겸직한다. 그동안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 1공장 준공과 상업생산 준비, 미국 시라큐스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생산물량 수주 등을 주도했다. 한국과 일본 롯데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일 원롯데’ 사업을 추진한 점도 승진 배경으로 꼽힌다.

롯데지주는 기존 고정욱·노준형 사장의 복수 전문경영인 체제를 노준형 대표이사 중심의 단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신동빈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 대표가 기획·전략부터 재무·준법까지 지주 기능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그룹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사업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실장에도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 경영혁신실장에는 김영혁 전무, HR혁신실장에는 배교 전무, 재무혁신실장에는 김원재 전무가 각각 보임됐다. 경영개선실장과 커뮤니케이션실장은 각각 김기순 전무와 이강훈 전무가 맡는다.

주요 계열사에서는 사업부별 전문경영 체제를 강화했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차우철 대표가 겸직해 온 마트·슈퍼사업부를 분리해 각각 독립적인 대표 체제로 운영한다.

슈퍼사업부 대표에는 신주백 롯데마트 베트남 법인장이 전무 승진과 함께 내정됐다. 신 전무는 2023년 베트남 법인장으로 부임한 이후 신규 출점을 확대하며 현지 사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롯데쇼핑은 마트와 슈퍼의 사업 특성에 맞춘 독립경영을 통해 시장 대응력과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롯데웰푸드도 푸드사업부를 별도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푸드사업부 대표에는 허진성 전무가 내정됐다. 허 전무는 롯데그룹 식품군HQ 경영기획부문장과 롯데웰푸드 혁신추진본부장 등을 거쳐 올해 푸드사업부장을 맡아왔다. 앞으로 육가공과 유제품, 가정간편식 등 푸드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인사도 단행됐다. 박두환 롯데지주 HR혁신실장(사장)은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이동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

엔비디아 372조 공급망 흔들리나… K-반도체·부품 '촉각'

젠슨 황 퇴진에 공급업체 관계 변수
일론 머스크 "개인적 신뢰 바탕 핵심 공급망 계약 일부 잃을 수도"
삼성전기, 반도체 패키지기판 계약
앰코테크놀로지, 13억弗 규모 체결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2회 국제 첨단 반도체 기판 및 패키징 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삼성전기 부스에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 퇴진 이후 엔비디아의 공급망 투자 지속 여부가 국내 반도체·부품업체의 신규 수주와 설비 증설에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지난 7월 기준 반도체 공급 및 생산능력 확보 약정은 2790억 달러(약 372조원)로 직전 분기 1190억달러(약 159조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2670억달러(약 356조원)는 2029년 초까지 이행할 공급계약 관련 금액이다. 다만 일부 약정은 확정 발주 이전에 취소하거나 납기 등을 조정할 수 있어 향후 발주 계획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황 전 CEO의 퇴진에 따른 공급업체와의 관계 변화도 변수로 제기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황 전 CEO가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확보한 핵심 공급망 계약 일부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엔비디아는 황 전 CEO 사임 발표 당시 기존 고객사와의 계약과 제품 개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엔비디아의 공급계약이 실제 조정될 경우 국내 협력업체의 신규 수주와 설비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기는 지난달 엔비디아와 다년간 반도체 패키지기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세종·부산 사업장에 전용 생산라인을 증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 공급 물량은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전체 기판 생산능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 생산시설에 투자한 해외 업체도 발주 물량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반도체 패키징업체 앰코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와 13억달러(약 1조 7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2028년 말까지 국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사 선급금으로 투자 부담을 줄였지만, 추가 발주가 축소되면 증설한 시설의 가동률과 투자금 회수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까지 둔화될 경우 국내 메모리업체도 수요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콜레트 크레스 임시 CEO 체제에서 AI 기업 투자와 데이터센터 금융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원이 축소되면 자금력이 취약한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증설이 지연될 수 있다. 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 신규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엔비디아의 반도체 생산 물량이 경쟁사로 분산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새로운 수주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용 HBM 공급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 14곳과 장기공급계약을 확보했다. SK하이닉스의 계약 물량은 2027년~2028년 전체 생산능력의 절반 이상이다. 일부 계약에는 선급금 등 구매 이행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결국 국내 반도체·부품업계는 엔비디아의 신규 발주와 AI 투자 규모가 향후 증설 계획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후임 경영진의 공급망 투자 및 금융지원 기조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황 전 CEO 퇴진 이후에도 엔비디아와의 공급계약이나 증설 계획에 변경 사항은 없다"며 "계약상 보호 장치는 통상 관련 조항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최교진 "AI 활용 부정행위 때 응시자격 최대 10년 박탈"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 추진
시험장용 전파기기 탐지기 등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시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수험장에 스마트 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능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AI 스마트 안경 대응 방안을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전날(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실토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관련 부정행위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최 장관은 "부정행위 예방을 강화하겠다. 지난 7월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물품에 포함했고 관련 내용을 반복해서 안내했다"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알리고 수능 당일 모든 시험실 앞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스마트 안경 착용 행위 시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해 응시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며 "나아가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고, 제한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도 각 대학에 부정행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우려가 커진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의심 행위 감독 요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기기 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도 수능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교육위 전체회의 후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특히,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선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 정직하게 실력을 갈고 닦아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해선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제제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부정행위에 대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린다. 정부와 여당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만큼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에도 요청드린다. 불안을 조장하기 보단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AI 기기 어떻게 잡나" 與野 한목소리 우려

與野 "근본적 방지 대책 시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AI(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6일 여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근본적인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최대 10년간 박탈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수험장 배치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여야 의원들은 감독 인력이 육안에 의존해서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우려를 쏟아냈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탐지기,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을 도입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올해 수능에서 적용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청기, 심장 관련 기기 등 의료용 디바이스를 가진 학생들이 응시할 때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라며 "감독관들에게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3일 남은 상황에서 (정확한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 사용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AI 기기를 활용한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수능은 물론 국가시험에 법학적성시험(LEET), 세무시험 등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돼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박태홍 기자

교육부 "수능 연기 고려 안 해"… 신종 부정행위 대응책 검토

AI 안경 이어 초소형 카메라 논란
최교진 장관, 시험장 현장 점검
감독관 유의 사항 보완 등 대응 논의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부정행위 논란 속에서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여론이 제기되자 선을 긋는 한편, 신종 부정행위 수법에 맞춘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을 사흘 앞두고 시험장을 찾아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5분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준비 상황을 살폈다.

이번 수능은 오는 19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 대책'에 따라 전국 시험장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보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조치를 마쳤다.

올해는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시험장에 판별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까지 불거졌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험장 내 전자기기 통제와 적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정치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능을 연기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입시·교육 유튜버 미미미누는 구체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면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 "수능 연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적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연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수능 연기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남은 기간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롭게 드러난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추가 조치는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감독관 유의 사항을 보완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바다의 새로운 가능성을 BNK에 담았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시작된 꿈이 더 넓은 바다로 이어지도록
BNK금융그룹이 해양수도권의 두근두근한 미래와 함께합니다

2026년 해양금융추진단 신설 및 선박·해양인프라 금융 확대





부산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 **해양금융추진단 신설 · 특화센터 운영**



울산 친환경 에너지 허브 · **에너지산업 금융지원 확대**



경남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 **해양 · 물류 등 지역 특화산업 금융 확대**

본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썸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아세안·APEC 정상외교 돌입… 日 다카이치와 양자회담

李, 3박4일 일정 필리핀 출국
"韓-필리핀 77년 우호협력 관계 건설·조선 이어 AI·우주 등 확대"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참석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해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3박4일 간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도착에 앞서 공개된 현지 언론 '필리핀 스타(The Philippine Star)'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긴밀한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덕분에 한국의 잠재력이 확대되었고, 세계와의 교류가 늘어났다"며 "아세안은 한국의 둘째 가는 교역·투자 파트너이고, 한-아세안 간 인적 교류는 연간 1200만 명에 달한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필리핀과 인프라·제조업을 넘어 협력 분야를 넓히겠다는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지난 77년간 양국은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한국 기업이 건설한 다리는 필리핀의 섬과 섬을 잇고, 한국 기업이 수빅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들은 앞으로 대양을 누비며 필리핀과 세계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의 협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우주, 원전, 핵심광물 등 새로운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아세안 정상회의를 소화한 후 이튿날인 17일 한중일 3개국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개별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날 아세안·에이펙 정상회의 출국 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셔틀 외교 차원 이후 약 반년만이고 양 정상의 네 번째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으로 향한다. 오는 18일에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CEO 서밋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19일엔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X(옛 트위터)에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했던 협력 과제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력을 이어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외교 협력 확대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성장·번영하는 길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AI와 문화창조 등 미래성장 분야 협력,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초국가 범죄 등 여러 나라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에도 주도적인 역할로 성과를 이끌겠다"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은 더 안전하고, 우리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 성장 정책에 대한 아세안과 APEC 회원국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순방에서 주요국과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외교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겠다"며 "에너지 공급망, 초국가범죄, 식량안보 등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 논의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아세안·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韓 상고심 지연에 "조희대 탄핵" 대법 압박

민주당, 법사위서 심리속도 등 질타
국힘 "법원판결 노골적 개입"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심리 지연을 비판하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일부 의원은 판결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선고 일정이 공지된 점과 내란 관련 사건의 심리 속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은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국민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며 "선고가 잘못 났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폭동에 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입장을 조 대법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재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금 하신 말씀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성윤 의원도 내란 청산을 위한 사법부 역할을 강조하며 선고 자체보다 판결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뿐 아니라 최상목 전 부총리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진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1심은 2달도 안 돼서 끝났는데 왜 대법원은 5달째 결정을 안 하고 있는가"라며 "이진관 재판장을 재판에서 손 떼게 만들려고 그런 것인가"고 따졌다.

노 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규정한 법 취지를 거론하며 대법원의 심리 지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고기간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정작 법원이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 기소 사건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한 규정을 언급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에서는 6·3·3 원칙(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법적 강제 규정)을 지켜달라고 입법기관에서 법을 제정했다. 최대한 우선하고 신속하게 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李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땐 내각도 공범"
국민의힘, 靑서 현장 최고위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재명 탈옥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난 9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청와대 앞에서 또다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꺼낸 개헌론에 대해서도 특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정희용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장겸 의원·박충권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굴을 비쳤다. 참석자들은 "탈옥법 대리의결 내각도 공범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지칭하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나라,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오늘 2026년 11월16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가 따라야 할 것은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며 "판사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안녕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려 한다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의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며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 준 것이다. '탈옥의 외주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시도'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특검이 출범·임명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수 기자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조정식 의장 "두 분, 정치의 큰 어른"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인선했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의 인선 소식을 알렸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신한국당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등 보수 정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당 등 민주계열 정당에서 6선 국회의원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제4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조 의장은 "두 분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이끄셨고 존경 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시며 개헌에 대한 높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김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틔우셨다"며 "정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 쏟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한다. 첫째, 국회가 주도한다. 둘째,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셋째, 여야의 합의와 국민 동의로 추진한다"며 "자문위는 제10차 헌법 개정안의 의제와 개헌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헌법 전문, 기본권, 권력 구조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헌법의 모습을 폭넓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내년 2027년이면 98년 헌법 체제가 40년을 맞게 된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 정신이 변하고 법과 제도도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며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며 국민 삶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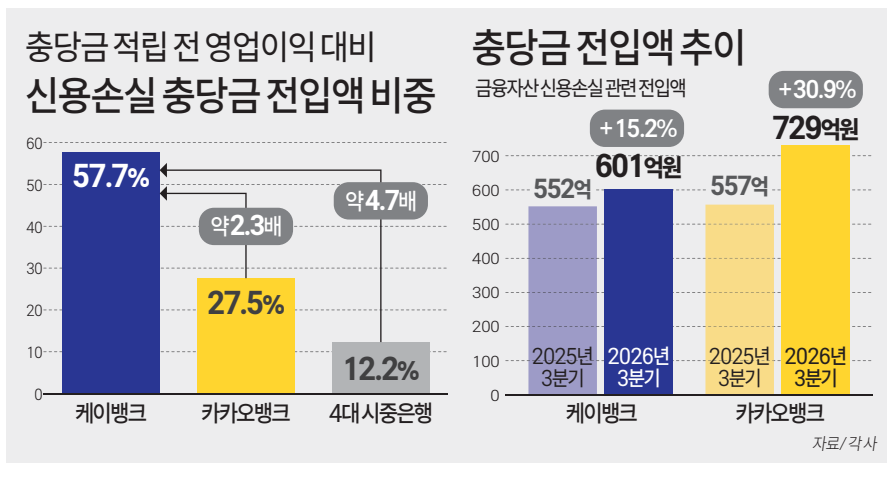
“오늘도 조금 더”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

대출 늘리는 인뱅, 손실충당금 부담↑… 시중은행의 4.7배

3분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비중
카카오뱅크, 27.5%로 상승 했지만
연체율 하락 등 건전성 지표 개선
케이뱅크 57.7%, 자산건전성 악화
3분기 연체율 전년비 0.06%p 상승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와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충당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에서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중은행의 최대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 대비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비중은 카카오뱅크 27.5%, 케이뱅크 57.7%로 집계됐다. 이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평균인 12.2%와 비교해 각각 약 2.3배, 4.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터넷은행들이 대출 자산을 빠르게 늘리는 과정에서 신용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도 확대되면서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3분기 금융자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7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7억원)보다 30.9% 증가했다. 전 분기(568억원)와 비교해도 약 28% 늘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금융자산 신용손실 관련 전입액은 601억원으로 전년 동기(521억원) 대비 15.2%, 전 분기(514억원) 대비 16.9% 증가했다.

특히 충당금 부담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충당금 차감 전 영업이익은 26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충당금 전입액 증가율은 30.9%로 이익 증가 속도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충당금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전입액 비중은 지난해 3분기 26.9%에서 올해 27.5%로 0.6%포인트(p) 상승했다. 전 분기(22.7%)와 비교하면 4.8%p 높아졌다.

케이뱅크는 해당 비중이 57.7%에 달해 충당금 적립 부담이 더 두드러졌다. 충당금 차감 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용손실비용으로 반영된 셈이다.

다만 충당금 증가가 반드시 기존 대출의 부실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대출이 늘어날 경우 실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상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충당금 전입액이 크게 늘었지만 자산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카카오뱅크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53%에서 올해 3분기 0.49%로 0.04%p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0.55%에서 0.53%로 낮아졌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약 2조8000억원에서 올해 3분기 4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했다. 대출 자산 확대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반영이 충당금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는 대출 확대와 함께 자산건전성 지표도 악화했다.

케이뱅크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56%에서 올해 3분기 0.62%로 0.06%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같은 기간 0.54%에서 0.60%로 높아졌다.

두 은행의 신용비용 부담은 누적 대손비용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3분기 누적 대손비용률은 0.54%로 전년 동기 대비 1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케이뱅크는 1.12%로 전년 동기보다 3bp 낮아졌지만 여전히 카카오뱅크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성장세가 지속되더라도 충당금 부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신규 여신 확대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과 기존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여신 확대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 기존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 부실채권(NPL) 매각 등의 추이가 앞으로 인터넷은행 실적의 질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NH농협금융, 올해 포용금융 3.4조 공급

2030년까지 총 15.3조 공급 계획
연내 NH미소금융재단 설립 예정


NH농협금융 사옥.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10월 말까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총 3조3784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금 공급과 이자 부담 완화, 대출심사 개선,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을 추진하고 연내 NH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NH농협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총 15조3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0월 말까지 농협은행 새희망홀씨대출 570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2조2595억원 등을 지원했다.

계열사도 자금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 NH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NH저축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통해 10월 말까지 280억원을 공급했다. NH농협캐피탈은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2030 청년 안아드림' 대출로 같은 기간 92억원을 지원했다.

지역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NH미소금융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연내 설립을 마치고 2027년 1분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진흥원 연계사업이다. NH농협금융은 청년 창업농과 귀촌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상품도 설계할 계획이다.

이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1월 신설한 'NH포용금융 우대금리'를 통해 평균 0.24%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적용, 10월 말까지 536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NH저축은행은 3월부터 신규 취급하는 햇살론 금리를 종전보다 1.0%포인트 낮춰 적용하고 있다.

성실상환 고객을 위한 계열사 간 대환대출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저축은행·캐피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을 쌓은 고객이 그룹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농협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위한 심사 방식도 개선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생활·소비데이터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올원브릿지모형'을 대출심사에 도입했다. NH저축은행은 대안신용평가 점수를 일부 소액 신용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체채무자의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NH농협은행은 범농협 차원의 9276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계획에 참여해 10월 말까지 개인·개인사업자 등의 시효완성 채권 3431억원을 소각했다.

NH농협캐피탈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고객의 원금 상환을 최대 6개월 미루는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882건, 401억원 규모 대출의 상환을 유예했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포용금융 지원은 자금 공급에서 끝나지 않고, 갚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자 5파전 압축

회추위, 23일 최종후보 1명 선정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이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직을 고사하면서 회장 선출 구도가 5파전으로 재편됐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윤 전 행장은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직을 고사했다. 지난 13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선정한 1차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지 사흘 만이다. 구체적인 고사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은행연합회 회추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 손병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 등 6명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윤 전 행장이 후보직을 고사하면서 남은 후보는 모두 민간 금융권 출신으로 구성됐다. 윤 전 행장은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로,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경제관료 출신 인사였다.

이에 따라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출은 김한조·박종복·손병환·윤종규·이원덕 등 5명의 경쟁으로 좁혀졌다.

은행연합회 회추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남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차기 회장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금융보안원 해킹, 수습·재발방지 총력"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보안원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관계기관 간부들과 함께 금융보안원을 방문하고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사무소에서 '금융보안원 해킹사고 재발방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디지털금융총괄국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고 금융권 침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9일 금융보안원 내부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진행됐다.

이날 신진창 부위원장은 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전담 기관인 금융보안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에 대한 빠짐없는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IT 시스템과 업무체계 전반의 신속한 재점검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스스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역량과 책임감을 갖춰 금융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조직 운영, 업무체계, IT 시스템 등 업무 전반을 쇄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토스뱅크,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검증

솔라나·체이널리시스와 공동 추진

토스뱅크가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 기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기반 해외송금이 평균 1~3영업일 소요되는 것과 달리 수십 초 이내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뱅크는 솔라나 재단,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와 공동 추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개념검증(PoC) 1단계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지난 6월 토스뱅크와 솔라나 재단이 체결한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 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른 첫 공동 프로젝트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솔라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송금 모델을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을 활용해 고객의 송금 요청부터 해외 수취인 지갑에 자금이 도달하기까지 전 과정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송금 요청부터 수취인 지갑에 USDC가 도달하기까지 최종 확정 기준 수십 초 이내에 처리가 완료됐다. 여러 건의 송금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네트워크 지연 없이 안정적인 처리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규제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토스뱅크는 체이널리시스와 협력해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대상 및 고위험 지갑 주소에 대한 자동 차단 기능을 검증했다. /나유리 기자

싼 값에 우후죽순… 中 전기차, 안전성·사후관리 과제

가격·기술 앞세워 국내 입지 확대
일부 차종 제동·조향 등 문제 발견
"가성비 전기차 점유율 상승은 사실"



BYD코리아의 21번째 승용 AS 거점 '용인 서비스센터' 외관. /BYD코리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과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가운데 차량 안전성과 사후관리 역량이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에서는 일부 차종의 제동·조향 관련 부품에 문제가 발견됐고, 국내에서는 사고수리 기간과 정비 거점 부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전문 플랫폼 둥처디가 지난달 8일 공개한 긴급제동 시험에서 화웨이와 장화이자동차(JAC)가 공동 개발한 '마에스트로 V800'의 브레이크 페달 지지대가 부러졌다. 시속 100㎞에서 정지할 때까지 급제동하는 시험을 반복한 결과 시험 차량 3대 모두 같은 부위가 파손됐다. 제조사 측은 실제 고객 운행에서 같은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부품 설계를 개선하고 이미 출고된 차량에는 무상 개선 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BYD는 지난 9월 브레이크 페달에 달린 부품이 파손돼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계속 켜질 수 있다며 친(Qin)·탕(Tang) 계열 18만3211대를 리콜했다. 니오는 조향 보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파이어플라이 전기차 686대를 리콜했다. 체리자동차도 뒤 차축 용접 불량으로 주행 중 바퀴를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차량 5만3882대를 오는 27일부터 리콜한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중국 내 리콜과 관련해 "국내 도입 모델은 대상 모델로 선정되지 않았다"며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모델은 각국 요구사항과 인증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한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BYD의 신규 등록은 1594대로 수입 승용차 브랜드 중 5위였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도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7X'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

판매 이후 사고수리 대응은 별개의 과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평균 사고수리 기간은 9.8일이었다. 국산 전기차 평균(5.3일)과 수입 전기차 평균(8.2일)보다 길었다.

BYD코리아 공식 목록에서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하다고 표시된 서비스센터는 전국 21곳 중 서울 양천, 인천 부평, 경기 안양·수원, 부산 사상 등 5곳이다. BYD코리아는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사고수리를 접수하고, 나머지 거점은 전문업체와 협력해 수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물류센터와 딜러 서비스망에 주요 부품을 미리 확보해 두고, 국내 재고가 없을 경우 필요에 따라 항공 운송으로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BYD코리아는 연말까지 전국 서비스센터를 26곳으로 늘리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림대 김필수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기존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들은 안전에 대한 전제 조건이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하더라도 함부로 시도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검수 절차, 시스템 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품질을 기반으로 한 가성비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고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왼쪽부터)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S,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쿠페,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벤츠코리아, GLE·GLS 부분변경 모델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LE와 GLE 쿠페, 플래그십 SUV GLS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며 대형 SUV 시장 공략에 나선다.

16일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더 뉴 GLE'와 '더 뉴 GLE 쿠페', '더 뉴 GLS'는 메르세데스-벤츠 SUV 특유의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관과 실내를 현대적으로 다듬었다.

벤츠코리아는 주행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렬 6기통 M256M EVO 가솔린 엔진과 9단 자동변속기(9G-TRONIC)를 조합했다고 설명했다. 에어 서스펜션과 가변 댐핑 시스템을 결합한 에어매틱(AIR MATIC) 서스펜션을 적용해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도 높였다.

차종별 차별화도 꾀했다. GLE에는 뒷좌석 전동 시트를 적용하고 GLE 쿠페에는 AMG 라인 스포츠 시트 패키지를 제공한다. 플래그십 모델 GLS는 6인승과 7인승 구성을 마련했으며 멀티컨투어 시트와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통해 탑승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국내 판매 라인업은 GLE 450 4MATIC AMG 라인, GLE 450 4MATIC 쿠페, GLS 450 4MATIC 등 총 6개 트림이다. 가격은 GLE와 GLE 쿠페 1억3670만~1억4080만원, GLS 1억5200만~1억612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LG, 수능 시험장 적정온도 지킨다

양사 시스템에어컨 사전 점검
시험 당일 긴급 대응체계 가동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수능 시험장의 시스템에어컨을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서비스


LG전자 하이엠솔루텍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에어컨을 점검하고 있다. /LG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냉난방 설비를 점검하고 시험 당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16일 양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로지텍과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시스템에어컨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시험 당일에는 전문 인력을 시험장 인근에 배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원격진단을 활용해 이상 발생에 대응한다.

삼성전자로지텍은 냉난방공조(HVAC) 전담 엔지니어를 통해 실내외기 팬 작동 상태와 적정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능 당일 전담 서비스팀을 시험장 주변에 배치해 긴급 출장과 임시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지원한다.

원격 대응도 병행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가전제품 원격진단(HRM)' 서비스로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 연결된 시스템에어컨의 상태와 사용 이력을 AI로 분석한다. 상담사는 이를 바탕으로 제품 설정을 원격 조정하거나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LG전자 하이엠솔루텍은 예비소집일 하루 전인 17일까지 실외기 팬 작동 상태와 과열 여부, 교실 내 난방 상태 등을 점검한다. 수능 당일에는 지역 센터별 대응 인력을 시험장 인근에 대기시키고, 콜센터와 학교 간 핫라인을 운영한다.

LG전자는 2024년부터 'LG 비컨 클라우드(LG BECON cloud)'로 서울 지역 주요 시험장의 시스템에어컨을 원격 관리하고 있다. 고장 징후나 난방 이상이 확인되면 학교에 안내한 뒤 현장을 방문해 조치한다. 또 해당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은 시험장에도 별도 무상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금호타이어,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실증

서울 운행 자율주행버스 적용

금호타이어가 서울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에 스마트 타이어를 적용해 주행 중 수집한 타이어 정보를 차량 관리에 활용하는 기술을 검증한다.

금호타이어는 자율주행 전문기업 에스유엠(SUM)과 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동작구 자율주행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실증한다고 1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상용차 신차용 타이어 'KXA15'와 'KRS03'에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적용한다. 타이어 내부 센서와 차량 내 무선통신기를 통해 공기압과 온도, 마모 상태, 주행 중 타이어에 걸리는 하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에스유엠은 실제 버스 운행 환경을 제공한다. 양사는 운행 중 수집한 센서 정보를 차량 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핀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고 유지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서울에서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자율주행버스 사업에 스마트 타이어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혁 기자 sh95@

LG전자-로봇산업진흥원,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맞손'

클로이드 국내 안전 시범인증 추진

LG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과 품질 검증에 나선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휴머노이드 로봇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로봇진흥원의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평가 시스템 구축과 관련 국제·국가표준 개발에 참여한다. 평가체계에 기업 현장의 품질 기준과 개발 경험을 반영하고 'LG 클로이드(CLOiD)' 등 자사 로봇의 국내 안전 시범인증도 추진한다.

클로이드는 바퀴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한 로봇이다. LG전자는 올해 초 제품 공개 당시 무게중심을 낮춰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갑자기 매달려도 균형을 쉽게 잃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가정용으로 선보인 클로이드의 활용 범위는 제조현장으로 확대한다. LG는 지난 8월 연내 미국 테네시 공장 세탁기 생산라인에 클로이드를 투입해 실증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실증 경험은 자체 로봇 인공지능(AI) 모델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클로이드 실증과 함께 내년 1분기 공개를 목표로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도 추진한다. 앞서 LG는 지난 8월 엔비디아와 전략적 사업협력 협약을 맺고 개발 계획을 구체화했다. 해당 로봇에는 연산·제어용 모듈 '젯슨 토르'를 탑재하고, AI 모델 '아이작 그루트'와 안전 시스템 '헤일로스 포 로보틱스'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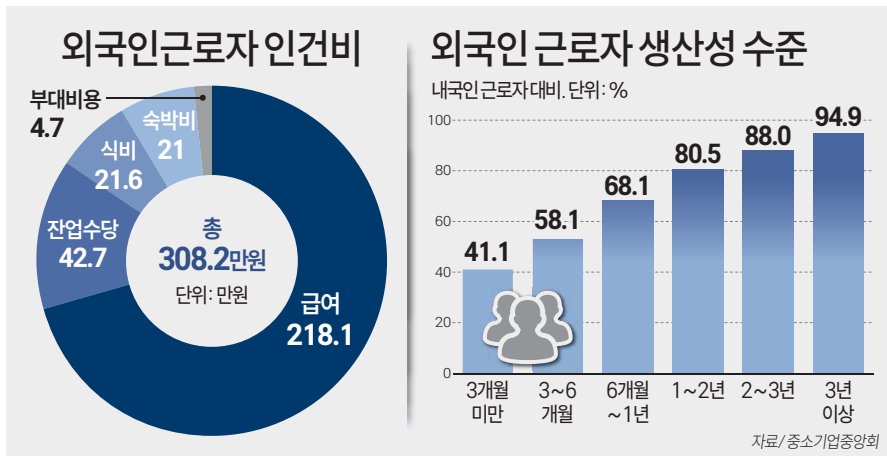
이밖에도 LG전자는 핵심부품과 데이터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로봇 관절을 구동하는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LG 데이터팩토리'를 통해 로봇 학습·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한다.

김창민 LG전자 품질경영센터장 전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전·품질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로봇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月 308만원… 생산성은 내국인 '절반'

〈평균〉

중기중앙회, 中企 1204곳 조사
외국인력 고용비용 지속 증가
입국 6개월 생산성 절반 미만
中企 92% "최소 3년 근무 필요"
숙련인력 이탈에 생산차질 우려
장기근속 유도할 지원책 요구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숙식비 등을 포함해 월평균 300만원이 훌쩍 넘고 있지만 생산성(6개월)은 내국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외국인 근로자의 첫 근무지 적정 근무 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생산성이 9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E-9 비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4년 10개월'(해당 비자 취업활동기간 3년+1회 최대 연장 1년10개월)간 직장을 옮기지 않고 근무한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204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6일 내놓은 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급여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213.1만→216.5만→218.1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식비도 19.6만→21.2만→21.6만원으로 증가했다. 응답기업의 60.6%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내국인 수준보다 '높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급여 218만1000원, 잔업수당 42만7000원, 부대비용 4만7000원 등 총 26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숙식비 42만6000원을 더하면 308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년전엔 292만8000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응답 중소기업의 92.1%는 생산성 확보, 고숙련 직무 배치 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후 최소 '3년 이상'(3년 초과 70.3%+3년 21.8%)은 근무해야 내국인 근로자와 비슷한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현재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56.8) ▲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6%)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43.8%) 등의 답변이 많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의사소통'이었다.

실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60.2%) ▲인건비 부담'(28.2%)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6.1%)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의사소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심화(63.9% → 70.6%) 된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수준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 발표가 예정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개편 방안과 관련해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되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인력 공백을 메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1~2년) 이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질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1+2+3 순위)에 대해 '숙련인력 이직에 따른 생산성·품질 저하'(94.7%), '대체인력 채용·교육비용 증가'(75.2%)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정부의 보완책(1+2+3 순위)으로는 ▲이직 사업장 대체인력 신속 알선(81%) ▲장기근속 근로자·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77.3%) 등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내국인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초기 낮은 생산성과 고용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제조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에 숙련된 기술을 익히고 내국인 수준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소영 "국감 지적·주요과제 직접 챙길 것"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후 첫 공공기관 협의회 주재
11개 기관장과 내년 핵심과제 점검
정책협의회 반기별→분기별 확대


이소영 중기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특별시 중기부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진행한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사항과 내년도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소영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중기부 청사에서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월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가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각 기관이 올해 성과와 부족한 점을 면밀히 살펴 내년도 사업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선 올해 주요 성과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

또 조기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하고, 중장기 과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2027년 중점 추진과제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정책자금·모태펀드의 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공정성,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온누리상품권 편법 거래, 기술탈취 피해구제 미흡,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대응의 한계, 정책대출 직후 폐업한 업체에 대한 심사·사후관리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중기부는 장관 주재 정책협의회를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삼성SDI, 美서 ESS 배터리 16GWh 수주

주피터파워와 수조원대 공급 계약
2029년부터 3년간 LFP 배터리 공급

삼성SDI가 미국에서 수조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추가 확보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SDI는 미주법인 삼성SDI 아메리카(SDIA)가 미국 ESS 개발·운영업체 주피터파워(Jupiter Power)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SDI는 오는 2029년부터 3년간 주피터파워의 미국 ESS 프로젝트에 총 16GWh(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수조원대로 추산된다. 기존 계약 물량까지 합하면 주피터파워와의 전체 수주 규모는 약 27GWh다.

주피터파워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소유한 기업으로, 미국 내 최대 수준의 ESS 프로젝트 개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SDI는 미국 인디애나주 스타플러스에너지(SPE) 공장에서 생산한 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해당 공장에서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대규모 공급 물량을 확보한 것이다.

삼성SDI는 북미 내 유일한 비(非)중국계 각형 ESS 배터리 생산 기업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현지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2조원 이상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미국 에너지 기업과 1조 5000억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에도 미국 알파오메가 파워와 1GWh 규모의 ESS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패브리스 허드리 삼성SDI 미주법인 ESS팀장(부사장)은 "이번 수주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각형 LFP 배터리의 경쟁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차별화한 각형 배터리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ESS 시장 공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중소벤처기업 AI 활용 수준 점검 지원

기보, AX혁신지수 자가진단 실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수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제2차 'AX혁신지수' 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

16일 기보에 따르면 자가진단은 지난 3월 실시한 1차 진단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수준과 전환 역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이평가 체계를 활용해 비교·분석하고, 그간 추진된 정부의 AI·AX 지원정책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가 개발한 AX혁신지수 간이평가 체계는 기업이 AI 도입·활용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전략 및 의지 ▲자원 및 조직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및 성과 등 4개 영역,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진단 결과는 종합점수와 항목별 분석 보고서로 제공되며, 기업은 AX 성숙도를 ▲기초 ▲준비 ▲구축 ▲확산 ▲선도 등 5단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자가진단 과정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인 벤처협회는 전국 4만여 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담당한다. 기보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의 AX 성숙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향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AX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AI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인구감소지역 판로 확대

中企·소상공인 대상 기획전 개최

공영홈쇼핑이 '긴급 판로지원 119센터'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돕는다. 16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92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해당 지역 상품을 원재료로 가공해 판매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공영홈쇼핑 누리집의 '긴급 판로지원 119센터'에서 할 수 있다. 중소기업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또는 해당 지역 생산품 증빙서류(원재료 구매 거래내역 또는 원산지·생산지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 상품은 전용 기획전에서 한 데 모아 판매한다. 기획전은 오는 12월1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며 해당 상품 구매 시 10%를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삼표시멘트, ESG 경영 4년째 'A등급 이상'

시멘트 업계 유일, 사회 부문 A+ 유지

삼표시멘트가 업계 최초로 ESG 전 부문에서 4년 연속 A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ESG 경영 노력을 대외에서 인정받았다.

삼표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최근 발표한 '2026년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삼표시멘트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A등급 이상을 획득했다.

특히 사회 부문은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를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SG 전 부문에서 4년 연속 A등급 이상을 유지한 기업은 시멘트 업계에서 삼표시멘트가 유일하다.

삼표시멘트는 환경 부문에서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과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생산공정 개선과 친환경 설비 확충, 친환경 저탄소 시멘트 브랜드 '블루멘트(BLUE MENT)' 개발 및 KS인증 확대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사업장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상생 활동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MONTES ALPHA
CABERNET SAUVIGNON
VALLE DE COLCHAGUA·CHILE
ALPHA
최고!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BCLI
Since 1996
2025 대한민국 브랜드 고객충성도 1위
Korea Brand 2025 Loyalty Leader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SO "프로그램 사용료 조정" vs PP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 10년 갈등 재점화

LG헬로비전, CJ ENM 송출 중단
딜라이브, 엠넷·투니버스 등 종료

OTT 등장으로 콘텐츠 공급자 우위
선공급 후계약 관행에 법적분쟁 발발



생성형 AI로 만든 LG헬로비전과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미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유료방송 가입자와 시청률 감소로 경영 부담이 커진 SO는 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콘텐츠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가치를 반영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최근 CJ ENM의 4개 채널의 송출 종료 계획을 통보했다. 이달 26일부터 tvN스포츠, 중화TV 등 4개 콘텐츠를 방송에 송출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LG헬로비전은 수신료 매출 감소와 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해 프로그램 사용료 조정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딜라이브도 엠넷, 투니버스 등 4개 채널의 공급계약 종료를 내걸고 사용료를 협상 중이다.

양측의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은 10년 넘게 지속된 해묵은 문제다. 케이블TV가 시장 우위를 점하던 2010년에는 콘텐츠 공급자가 정부에 최소 수신료 배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냈다. 유료방송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비용 부담이 콘텐츠 프로그램 사용료 인하로 이어지면서다. 당시 케이블 TV의 시장 점유율은 70%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주도권은 정반대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 되고, 이를 송출하는 플랫폼이 대거 등장하면서 콘텐츠 공급자가 협상 카드를 확보하게 됐다. 예를 들어 대표 사업자인 CJ ENM은 자사의 방송 채널을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OTT 서비스 '티빙'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 상황은 변했지만 이들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SO협의회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채널별 시청률과 기여도, 사업자의 경영 여건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특정 대형 PP 채널의 경우 시청률이 2023년부터 2년 사이 20%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6.3% 줄었다.

반면 PP업계는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방송채널진흥협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악화를 이유로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PP업계도 제작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방송 광고 매출은 2021년 1조6862억에서 지난해 1조1331억원으로 32.8% 급감했다.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이어져 온 '선공급 후계약' 관행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LG헬로비전과 CJ ENM은 지난 2023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자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사용료 산정 기준과 계약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미통위는 막바지 조율 단계를 거쳐 오는 12월 중 유료방송의 미디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시급히 공론장을 마련해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KT, PASS 앱으로 교통 과태료 확인

경찰청과 함께 내일부터 시행
고지내용·납부기한 신속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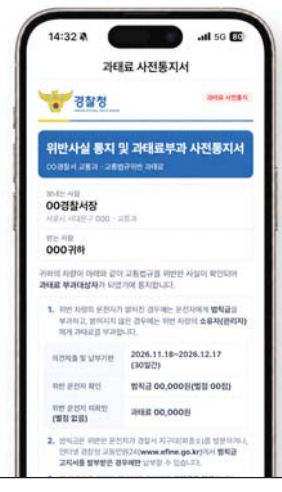
KT는 오는 18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패스(PASS) 앱을 통해 교통 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사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부과 내용과 납부기한을 제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종이우편은 다른 우편물과 섞이거나 분실될 수 있고, 수신자가 집을 오랜 기간 비울 경우 고지 내용을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사유 등 고지 내용과 납부기한 등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수신자는 최초 1회 패스 지갑 서비스에 가입하고 공인전자주소 등록 약관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열람할 수 있어 고지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줄일 수 있다. 특히 고지 내용은 패스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전자고지를 받지 못했거나 정해진 기간 내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패스 앱과 종이우편을 통해 재안내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기존 종이우편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면 대체하지 않고 병행 운영해 패스 앱 이용이 어려운 국민도 기존 방식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패스 전자고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발송·수신·열람 여부를 확인해 고지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와 우편 발송을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종이 자원 절감 등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SKT-효성重, AIDC 전력 인프라 강화

GW급 신규 AIDC 사업 발굴 '맞손'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AIDC)에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효성중공업과 협력한다. 핵심 전력설비의 생산 계획을 공유하고, 차세대 전력변환 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효성중공업과 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345kV 변전소 핵심 기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800V 직류배전 등 차세대 전력기술 실증을 시작으로 GW급 신규 AI 데이터센터 사업 발굴까지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양사 대표이사는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 데이터센터가 대규모·고밀도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핵심 전력설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 역량이 필수다.



16일 서울 SKT타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정재헌 SK텔레콤 CEO(왼쪽)와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개발·운영 역량과 효성중공업의 전력 인프라 제조·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결합하고 미래 AI 인프라 시장에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345kVV 변전소 핵심 기자재 등 주요 전력설비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345kV 변전소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대용량 전력을 전력계통에서 받아 데이터센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변환해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변압기처럼 주문부터 납품까지 오래 걸리는 장납기 설비는 확보가 늦어지면 설치·가동 일정까지 밀릴 수 있다. 양사는 핵심 장납기 설비의 생산·공급 계획을 선제적으로 협의해 설비 조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800V 직류배전 등 차세대 전력변환 기술의 공동 검토 및 실증도 추진한다. 800V 직류배전은 서버와 통신장비가 사용하는 전력을 서버·통신장비 직류로 보내 변환 단계를 줄이는 방식이다. 향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기술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데이터센터 가동 이후의 전력 인프라 운영 역량도 강화한다. 초고압 변전설비 운영·유지보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SK텔레콤과 효성중공업은 협력 범위를 AI 데이터센터 사업개발·구축 분야로 넓히고, 각 사의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결합한 신규 사업 기회 및 협력형 사업모델을 공동 발굴·검토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LG U+, 기업 네트워크·보안 통합 관리

플랫폼 '유플러스세이시' 선봬

LG유플러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기업의 네트워크와 보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플랫폼 '유플러스세이시(U+SASE)'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플러스세이시는 기업의 모든 업무 공간 속 네트워크 연결과 보안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사와 지사,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재택·원격근무 환경 등 이 포함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기업의 업무 환경은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원격근무와 생성형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기업 내부 데이터가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사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기존 보안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 네트워크 회선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 보안은 개별 보안기업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거 방식은 빠른 대응과 원인 파악이 어려워 관리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와 보안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유플러스세이시'를 개발했다. 보안이 필요한 업무 트래픽을 네트워크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협에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유해·악성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보안 웹 게이트웨이(SWG) ▲클라우드 기반 방화벽(FWaaS) ▲SaaS 사용 현황을 가시화하고 통제하는 CASB ▲사용자와 단말의 상태를 검증해 업무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는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ZTNA) 등의 기능이 활용된다.

특히, ZTNA의 핵심인 네트워크 환경과 단말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해 최적의 보안 경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은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해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

생성형 AI에 대응한 보안 기능도 지원한다. 임직원이 입력한 프롬프트와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한 요청은 차단하고, 개인정보나 기업의 중요 정보가 외부 AI 서비스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클라우드 보안 전문 기업 모니터랩과의 협력해 보안 수준을 높였으며, LG유플러스의 보안 전담 직원들이 24시간 365일 네트워크와 보안을 통합 관제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조민선 기자

안랩클라우드메이트, 韓 인터넷대상 특별상

'시큐어브리지' 개발·보급 공로 인정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인터넷 기술혁신' 부문에 선정됐다. 이 부문은 인터넷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화, 융·복합 기술 개발 등으로 인터넷 기술·서비스 혁신에 공헌한 단체에 주는 상이다.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보안 솔루션 '시큐어브리지'를 개발·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생성형 AI 사용을 일괄 금지하는 대신 보안 정책 안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터넷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주관하는 정부 시상이다. 인터넷 산업 발전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단체·개인을 찾아 포상한다. 단체 부문은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혁신, 인터넷 사회공헌으로 나뉘고, 개인 부문에는 공로상이 있다. /김보민 기자 kbm@

美 AI 쇼크에 코스피 5100선 추락… 엔비디아 실적이 변곡점

'반도체 편중' 코스피 직격탄
삼성 4.47%, SK 7.89% 주가 하락
매물 받을 국내 투자자 자금 줄고
美 기준금리 인상 공포까지 겹쳐
젠슨 황 복귀, 앤트로픽 상장 '주목'



코스피가 3.59% 내린 5100.50에 거래를 마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산 평단(평균 매수 단가)은 바라지도 않는다. 19만원대에서 버티기로 했으면 좋겠다."

16일 코스피가 5100선 초반으로 곤두박질치자 온라인 증권 커뮤니티엔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이 쏟아졌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과 블루웨이브(미국 민주당 상·하원 압승) 등으로 인공지능(AI)의 미래에 잿빛 그림자가 드리운 영향이다. AI 투자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누리는 호황을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내 증시에서 거래 대금과 증시 대기자금까지 줄어들면서, 미국발 AI 우려가 국내 증시의 출렁임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AI 투자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어느 쪽이 확산되느냐에 따라 반도체주와 코스피가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 AI 둘러싼 악재, 코스피에 더 가혹

이날 코스피는 3.59% 하락한 5100.50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4.47% 떨어진 19만6800원, SK하이닉스는 7.89% 하락한 112만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1조 3800억원 순매도했다. 지난달 28~29일 두 회사의 역대 최대 실적 발표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는 것은 확인됐지만, 미국발 악재에 AI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탓이다.

코스피는 반도체 호황 덕에 올 상반기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크게 상승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선 주요국 증시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이날 종가는 종전 최고치인 9114.55(6월 22일)보다 약 44%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 편중 구조가 낳은 결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전체 시총의 46%에 달한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49%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지만, 해외 AI 데이터센터의 투자·건설 차질 같은 작은 소식 하나에도 증시가 요동친다.

주가가 떨어질 때 외국인의 '팔자' 매물을 받아줄 국내 투자자 자금도 줄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5월 평균 130조4400억원에서 이달 88조6659억원으로 약 41조원(32%) 줄었다.

주가 하락기에 매수세가 약해져 매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이날 52.64로, 지난 9월 말보다 22% 상승했다. 이 수치가 클수록 투자자들이 향후 큰 출렁임을 예상한다는 뜻이다.

◆ 증시 변동성 잡을 호재도 AI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계기는 엔비디아의 CEO 리스크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발 불확실성에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종목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외국인의 매도 속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낙폭이 커졌다"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일단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15일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CEO 자리 복귀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 CEO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센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투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 서버용 D램·낸드 수요를 늘리는 핵심 동력이다.

국내 증권가는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반영해 2027년 영업이익 전망을 잇따라 높였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 전망치를 기존보다 20% 높인 약 624조원으로, SK증권은 SK하이닉스 전망치를 12% 높인 약 488조원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공포까지 겹쳤다. 지난 10일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보다 0.4% 오르면서 예상치인 0.3%를 웃돌았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지표 발표에 앞서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 0.3% 안팎 이상 오르면 12월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17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18일),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19일)으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주주환원이 한국 증시를 부스트업할 것으로 봤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1일 발간한 '한국, 르네상스가 온다' 보고서에서 "3~5년 내 코스피 1만선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 경제와 증시가 구조적인 재평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그룹 가운데 SK·한화·현대자동차·두산의 지배구조 개선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삼성과 LG, 롯데, 카카오, 셀트리온, CJ, 신세계 등은 '중립'으로 분류하는 등 한국 기업의 'DNA'가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내년 巫 증시 19% 수익… 가치평가 매력적"

골드만삭스, 巫 기업 이익 증가 기대
H주, 인도증시 '비중 확대' 의견
AI 설비 투자 증가 속도 둔화 분석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올해 한국과 함께 아시아 증시 상승을 이끈 대만의 투자의견은 '시장 비중'으로 낮췄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티머시 모가 이끄는 골드만삭스 전략팀은 내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일본 제외 아시아 지수가 달러 기준 19%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주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봤다.

이 지수는 지난 6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고점 대비 약 13% 하락했다. 연초 이후로는 달러 기준 약 11% 오른 상태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투자 여건이 올해보다 덜 우호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하반기 주가 조정에 이미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전략팀은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가치평가는 매력적이며, 역내 시장 간 편차도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내년 성장세에 부담을 줄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는 AI 관련 투자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주식인 H주와 인도 증시의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렸다. 일본에 대해서도 기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골드만삭스는 별도 보고서에서 AI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AI 설비투자 규모는 더 커지겠지만, 기업의 추가 지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예전만큼 우호적이지 않아 투자 증가 속도는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채권 발행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고 주식 발행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줄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김혜원 코스콤 AX·R&D본부장(앞줄 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열린 사내 AI 코딩 해커톤 'ㅋㅋ톤' 본선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코스콤, 사내 AI 코딩 해커톤 'ㅋㅋ톤' 열어

36개 팀 중 11개 팀 본선 진출
'내 업무 불편함을 AI로 해결' 주제

코스콤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사내 AI 코딩 해커톤 'ㅋㅋ톤' 본선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직군과 코딩 경험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대회에는 36개 팀이 기획서를 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11개 팀이 본선에서 개발한 도구를 선보였다.

참가팀은 '내 업무의 불편함을 AI로 해결'을 주제로 도구를 개발했다. 개발 과정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해 가상 데이터만 사용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코스콤 전사 AX 추진단은 업무 개선 효과와 사내 AI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4개 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사내 기술 행사 '코스콤 테크 서밋 2026'에서 열린다. 대상 수상팀은 행사에서 개발한 도구를 직접 발표한다.

김혜원 코스콤 AX·R&D본부장은 "이번 'ㅋㅋ톤'은 업무를 가장 잘 아는 현업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AI로 직접 구현하며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WFE 연차총회 참석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이 제65차 WFE 연차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인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WFE는 세계 각국의 정규거래소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다.

정 이사장은 총회에서 나스닥,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홍콩거래소 등 주요 거래소 대표들과 거래시간 확대와 증권 토큰화가 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

정 이사장은 18일에는 사마라 코헨 블랙록 글로벌 시장개발 총괄과 별도로 만난다.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주기 단축 방안을 설명하고,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금투협, 日서 자산운용 혁신사례 점검

日 금융청, 정부연금투자펀드 방문

금융투자협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26 자산운용 GIS(Global Insight Series)'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표단은 일본 금융청과 정부연금투자펀드(GPIF), 현지 자산운용사 등을 방문한다.

일본 금융청에서는 신NISA 도입 성과와 자산운용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본다. GPIF에서는 공적연금이 장기 수익을 위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살피고, 연기금이 자본시장에서 맡는 역할을 논의한다.

운용사 방문에서는 상품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블랙록재팬에서는 투자·위험관리 플랫폼 '알라딘'의 사업화 사례와 글로벌 상품을 일본 시장에 맞춰 내놓는 전략을 살펴본다. 미쓰비시UFJ자산운용 등 현지 운용사들과는 저비용 인덱스펀드, 연금상품 개발, 해외 사업 확대 사례를 공유한다. 일본 로펌 모리 하마다 앤 마쓰모토에서는 금융규제 변화에 따른 신사업 기회와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률·제도적 쟁점을 논의한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자산운용산업은 국민의 장기자산 형성과 노후자산 증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일본의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운용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K-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교보증권, AI로 임직원 주도 업무 개선

'AI-DX 실무혁신 프로젝트' 마무리

교보증권은 임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DX 실무혁신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부터 임직원들이 현업의 개선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해결책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I 리터러시 교육과 직무별 실습, 전문가 피드백 등 단계별 과정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이 개발한 솔루션 가운데 ▲보안점검 자동화 ▲투자설명서 판독기 ▲펀드판매 통합관리 ▲예산 현황 관리 ▲회계 이상거래 탐지 ▲리스크 투자정보 관리 등 6개 과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최종 발표회에서는 실용성과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회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최우수 프로젝트로 뽑혔다. /김아영 기자

농어촌공사, 물 안보 확보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해법 모색

21차 INWEPF 운영위원회

'식량안보를 위한 물 안보' 주제
미래 농업용수 관리 방향 등 논의
공사, 국제무대 교류 지속 방침



경기 안성에서 열린 '제21차 논 농업지역 물·생태계 국제 네트워크(INWEPF) 운영위원회' 참석자들. /농어촌공사

글로벌 식량·물 안보 및 미래농업용수 관리 관련한 논의를 위해 14개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한국에 모였다.

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사흘간 경기 안산에서 '제21차 논 농업지역 물·생태계 국제 네트워크(INWEPF)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물관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INWEPF는 논 농업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다. 농업용수와 논 생태계 관리 관련 정책·기술 교류를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한국은 워킹그룹(WG-2) 의장국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대적 관개 시스템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식량안보를 위한 물 안보'를 주제로 마련됐다.

행사는 식량·물 안보와 미래 농업용수 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로 시작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준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장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량안보와 물 안보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와타나베 쓰기히로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회장은 아시아 각국의 논 물관리 사례와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기술과 기반시설뿐 아니라 제도와 농업인 참여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물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최경숙 경북대 교수, 와차라 수이아디 INWEPF 태국위원회 위원장, 모드 파이줄 무스타파 말레이시아 농업부 관개배수 부과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각각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의 농업용수 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세션 발표에서는 11개국 전문가 12명이 기후변화 대응 관개·배수시설 현대화와 논 생태계 보전, 첨단기술 활용 물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한국에서는 홍석영 농촌진흥청 국가농업위성센터장이 지난 7월 발사된 농림위성의 농업 분야 활용계획을 소개했다. 김대우 공사 농어촌연구원 차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관개·배수시설 현대화 정책 및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12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워킹그룹)와 국가위원회가 올해 활동을 보고했다. 한국은 지난 10월 제26차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총회에서 일본과 공동 개최한 '식량안보를 위한 물 안보 강화' 워크숍 성과를 알렸다. 이 밖에 한국의 통합 물관리, K-라이스벨트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분과위원회별 회의·세미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마지막 날인 13일 공사 농어촌연구원 국제융합수리시험센터와 국립농업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변화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물 안보 확보는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각국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국제교류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세계물포럼(WWF)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를 이어 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기술 협력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김성환 장관 "韓, '탄소시장연합' 신규 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

김 장관, OCCM 고위급 회의 참석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 등 공유"

우리나라가 '탄소시장연합'의 14번째 회원국이 됐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이날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계기의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OCCCM·약칭: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선언했다.

OCCCM은 배출권거래제 등 의무탄소시장에 관한 협력을 도모한다. 지난해 당사국총회(COP30)에서 브라질이 제안했다. 이어 올해 5월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의 참여로 출범한 자발적 협력체다. 한국이 가입하면서 회원국 수가 14개국으로 늘었다.


세종 기후부 청사 /메트로신문DB

이 협력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의무 탄소시장에 관한 경험을 공유한다. 산정·보고·검증, 탄소회계, 고품질 상쇄제도 활용 등을 주제로 회원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가 단위의 의무 탄소시장 또는 탄소가격제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성환 장관은 가입 발표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며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구축한 산정·보고·검증(MRV) 체계와 시장 설계·운영, 배출권거래제 내 상쇄제도 운영 경험 등을 탄소시장연합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탄소시장연합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탄소시장연합을 의무탄소시장 국제협력의 핵심 구심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또 2027년 업무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업무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발족해, 향후 본격적인 국제 탄소시장 논의 진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창출 팔 걷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업무협약

노사발전재단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진단평가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재단은 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전국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광역형 특화 고용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경기과학기술대에서 맺은 협약에서 양 기관은, 지원 범위를 단일 지역에서 전국 단위의 광역형 체계로 전격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그간 경기지역에서 자동차 진단분야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자동차 진단평가 분야 중장년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 ▲전국단위 채용 수요 발굴 및 기업 연계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의 진단평가사 양성교육 및 인프라 지원 ▲기관 간 홍보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오른쪽)이 14일 엄기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장과 '자동차 진단평가 인력양성 및 고용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광역형 특화 서비스의 핵심은 지역 한계를 넘어 현장에서 필요한 일자리와 인재를 밀착 연결하는 데 있다"며 "제도와 숫자에 치우치기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마사회,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우희종 회장 "포용·상생 일터 만들 것"

한국마사회가 '202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모범을 보인 기업을 선정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제도이다.

마사회는 정규직 채용 시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을 운영했다. 특히 AI·빅데이터 전문 직무와 불법경마 사이버 단속 지원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해 왔다. 이를 통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장애인 구직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왔다. 채용 전형 전반에 걸쳐 보훈·장애 중복 가점을 확대 인정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우대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등 채용 문턱을 낮췄다. 또 시험시간 연장, 별도 시험실 배정, '읽기 쉬운 채용공고문' 제공 등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실질적인 편의 지원도 강화했다.

장애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음성점멸 유도등 교체, 단차 해소를 위한 경사로 설치 등 사내 무장애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장애대학생 기업탐방 우수기업'에 이어 올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것. 장애인 취업 지원부터 채용·근무환경 개선까지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정부포상 추천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사진)은 "장애인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 기회 확대뿐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과 상생의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경제지주, '그리니 3기' 해단식

양파 등 농산물 소비 활성화 힘 보태

농협경제지주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그리니 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은 6개월간 제철 농산물과 농협 가공식품 홍보, 농협 경제사업 현장 취재, 소비촉진 캠페인 및 농산물 나눔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였다.

특히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파 및 샤인머스캣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들 손에서 온라인 콘텐츠 총 250건이 탄생했다.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순국선열의 날을 앞두고 서울 독립공원 일대에서 사회적기업의 플로깅 세트를 활용한 쓰레기 수거에도 참여했다.

또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와 함께 ▲활동성과 보고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여 등을 통해 6개월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대표이사는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젊은 시각으로 널리 알려준 대학생 서포터즈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농협은 대학생 서포터즈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젊은 세대에게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햇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햇터그룹
Haetter Group

경북,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인명피해 제로" 사수

내년 3월까지 24시간 대응체계
제설장비 4719대·인력 1만명 투입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집중 점검
고립 우려 112개 마을 안전관리
한파쉼터 5210곳·취약계층 보호



경북도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사진은 제설 차량 작업 모습.

경북도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형 산불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거주민과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보호와 초기 제설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지난 13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도내 22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재난대책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11·12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1월 찬 공기 유입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설차량 1199대와 소형 제설장비 3520대, 제설인력 1만1473명, 제설제 1만6281t을 확보했다. 강설 초기 신속 대응을 위해 주요 취약구간에 장비와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재해우려지역 850곳과 상습 결빙 예상구간 327곳을 중점 점검한다. 폭설로 인한 산간 고립에 대비해 13개 시군 112개 마을, 857가구 1430명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비상발전기·위성전화·구호물품 등도 미리 배치한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도는 대형 산불피해지역 5개 시군 임시조립주택 1880동(거주민 3049명)의 보온시설과 수도 동파방지 열선을 점검하고, 제설도구 비치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도내 한파쉼터 5210곳의 난방·운영 상태를 살피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만7857명을 상대로 방문·안부 전화 등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한파대책비 10억6000만원을 투입해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쉼터 난방기기·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를 추진하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한다.

경북도 담당자에 따르면 "겨울철 자연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변화와 국지적 폭설, 갑작스러운 한파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거주민과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진도 서망항, 서남해안 수산경제 거점 도약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최종 선정
917억 투입해 가공·유통시설 확충

진도군 서망항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서망항은 기존 수산물 생산과 위판 중심의 어항에서 저장, 가공, 유통, 관광 기능을 갖춘 서남해안의 수산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서망항은 전국적인 꽃게 주산지이자 서남해안의 주요 수산물 위판 거점으로, 2025년 위판액 327억 원을 기록했으나 저장, 가공, 유통시설과 어항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진도군은 어항시설과 수산물 유통 체계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난 5월에 공모를 신청했으며, 7월에 '예비 대상항' 선정 이후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진도군에 따르면 서망항 일원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605억 원, 지방비 252억 원, 민간투자 60억 원, 총 917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남측 소형선 부두 확충과 하역 자동화 ▲주차타워와 어항 경관, 안전시설 조성 ▲저온유통 거점(콜드체인 허브) 구축 ▲위판장 현대화와 저온 저장시설 확충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등이다. 이번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을 통해 635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에 확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282억 원)과 연계해 서망항 일대를 서남해안의 종합 수산 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100억 원 규모의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도 선정됨에 따라 서망항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25가구와 주민교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대호 기자 eogh7505@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탄력

예타 통과로 1007억 규모 사업 추진

포항시가 추진하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007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국비 705억 원, 도비 91억 원, 시비 211억 원으로 구성된다. 호미곶 앞바다에 게바다말·잘피숲을 조성하는 해중생태 복원과 바다거북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호미반도 보전센터와 바다연어 물길정원, 심해체험 바다학교, 해안생태단구원 등 교육·체험시설을 구축한다.

호미반도는 106.7㎞의 해안선과 71.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기존 해안관광자원과 어촌·해양문화 자원을 연계해 해양생태계 보전·복원과 교육·연구,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 지정 절차를 앞둔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추진과 연계해 육상과 해양을 아우르는 보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사업 과정에는 주민과 어업인,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 등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응해 사업계획을 보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사항을 분석하고 국가적 보전가치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2026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라이엇게임즈

수원시, 2027 롤드컵 본선 개최지 확정

내년 11월 2~7일 수원컨벤션센터

수원특례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인 '2027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본선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지난 14일 최종 개최 도시로 확정됐으며, 2027년 1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8강과 4강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7 롤드컵에는 전 세계 6개 지역 리그에서 19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수원에서 열리는 본선 경기에는 하루 8000명씩 총 4만 8000명의 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지난 4월 1차 유치 의향서 심사를 통과한 뒤 7월 유치 제안서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쳤다. 이어 8월 3차 최종 심사에서 우선협상 도시로 선정됐으며, 11월 14일 본선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이재준 시장은 "세계적인 e스포츠 축제인 롤드컵 녹아웃 스테이지를 수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수원의 문화·관광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세계 각국의 e스포츠 팬들이 수원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진안군, 김치보쌈축제 성황리 마무리

궂은 날씨에도 전국 방문객 발길

진안고원의 우수한 배추와 김장문화를 알리는 '제8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의 호응속에 막을 내렸다.

진안군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안군 로컬푸드직매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방문객이 찾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김장체험이었다. 큰 일교차와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라 속이 꽉 차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진안고원 배추를 활용해 방문객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행사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김장의 재미를 나누고 진안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험했다.

먹거리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진안 흑돼지 수육과 김치를 비롯해 천원 막걸리, 로컬바비큐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가 인기를 끌었다. 김장 골든벨과 'SHOW ME THE 김장', 홍삼 칵테일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연도 축제의 흥을 돋웠다. 어린이 놀이공간과 김치마을 팝업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진안(전북)=허남근 기자 nk1378@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APEC 미디어월 상설 운영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당시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던 미디어월을 상설화하고, 보문수상공연장 앞에서 '포스트 APEC 미디어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상회의 기간 임시로 설치했던 미디어월을 상설 문화콘텐츠로 조성해 APEC 개최 성과를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대표 콘텐츠는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봉수형 유리병을 소재로 한 영상이다. 페르시아에서 실크로드를 거쳐 신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유리병을 통해 고대 신라의 국제 교류 역사를 조명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산청군
첫 영남 피클볼대회 성황리 개최

'제1회 산청군협회장배 영남 피클볼대회'가 15일 산청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영남지역 10개군 선수단 230여 명이 참가해 경기를 치렀다. 선수들은 그동안 연습한 기량을 겨루고 지역 동호인들과 교류했다. 현장에는 유명현 산청군수,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장, 신종철 경남도의회 부의장, 오상석 산청군 피클볼협회장, 김규성 경남 피클볼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명현 군수는 피클볼 동호인 활동과 종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청(경남)=이정민 기자 metrobusan6@

하동군
쌀 수출 1000톤 넘어서며 호조

경남 하동군은 올해 쌀 수출량이 1000톤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동쌀은 2012년 호주에 처음 수출된 이후 누적 수출량이 3000톤을 넘어섰다. 올해 수출량은 지난해 600톤보다 400톤 늘었으며, 군은 연말까지 1200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대상국은 캐나다와 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 9개국이다. 국가별 수출량은 캐나다 700톤, 미국 147톤, 뉴질랜드 51톤, 영국 44톤으로 북미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하동쌀은 북미 지역에서 영업하는 스시 체인 벤토스시(BENTO SUSHI)에도 공급되고 있다. /하동(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인천시
수능일 특별수송 대책 가동

인천시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수험생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험장 이동을 돕는 특별수송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지역 수능 응시자는 2만 9,702명으로 시내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등교시간대 집중배차를 실시하고, 시험장 경유 노선에는 안내표지 부착과 안내방송으로 시험장 위치를 알린다. 도시철도는 주요 역사 21곳에 안내인력 92명을 배치하고, 비상대기열차 3대와 운행 지원반 14명을 운영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유통업계, 온·오프라인 고객 잡기

컬리, 맞춤형 체험 역량집중 뷰티페스타 거래액 수직상승

컬리뷰티페스타 성료… 1만4000명 찾아
"고객·파트너사 소통의 무대로 만들 것"



'컬리뷰티페스타 2026' 행사장 전경. /컬리

컬리는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한 '컬리뷰티페스타 2026'에 1만4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 참여 브랜드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0% 증가했다.

'당신의 매일을 더 아름답게(Your Day, Your Beauty)'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아침, 낮, 저녁, 밤 시간대별 공간에 일상 속 뷰티 루틴을 담았다. 여기에 고객의 취향과 피부 타입에 따른 맞춤형 뷰티 체험을 마련했다. 참여 브랜드 45개 중 절반가량이 페스타에 처음 합류했다.

이번 행사는 브랜드나 제품 카테고리가 아닌 사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제품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컬리관'에서는 아침 치약, 밤 마스크팩 등 시간대에 맞춘 컬리온리 제품을 선보였다. 세면대 콘셉트의 모닝 컬리관에서는 LG생활건강 '1450 고불소 브리즈 자스민 치약'을, 화장대 콘셉트의 나이트 컬리관에서는 '듀에라 5X 투스텝 페이셜 필름 마스크'를 소개했다. '뷰티컬리 아이콘'에서는 올해 컬리에서 가장 사랑받은 베스트 아이템 48개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모발 진단, 색상 조합 등 다양한 뷰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아멜리'에서는 눈동자 색에 맞춘 색조 메이크업 제품을, '시세이도프로페셔널'은 모발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헤어 케어를 제안했다. 'SK-II'는 비접촉 피부 측정 기기 '매직 스캔'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1:1 상담을 진행했다.

현장의 관심을 구매로 잇는 온·오프라인 연계도 강화했다. 부스에 비치된 QR코드 촬영 시 시크릿 쿠폰을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는 '11월 그랜드 뷰티컬리페스타'를 열어 5600여 개 뷰티 제품을 최대 90% 할인 판매했다. 그 결과 행사 기간 온라인 기획전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니엘트루스' 32배, '르네휘테르' 13배 등 주요 브랜드의 거래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박진수 컬리 경험디자인 본부장은 "올해 행사는 고객이 컬리의 큐레이션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는 온라인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뷰티 체험을 제공하고, 파트너사에는 브랜드 철학을 전할 수 있는 소통의 무대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이구홈' 300만명 찾았다 무신사, 신규출점 지속 추진

고객 유입 이어져… 외국인 매출 급증
"다양한 홈·라이프스타일 경험 제공"


29CM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이구홈 성수 1호점'. /무신사

무신사가 운영하는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9CM의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이구홈(29CM HOME)'이 올해 누적 방문객 300만명을 돌파했다. 온라인에서 선보여 온 국내외 디자인 브랜드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전략이 고객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9CM는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이구홈 5개 매장의 누적 방문객이 309만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29CM 앱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디자인 브랜드를 한곳에 모아 선보인 점이 고객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이구홈 5개 전 매장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평균 40%대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에 위치한 성수 1호점은 지난 10월 외국인 매출 비중이 66%를 넘어섰다. 국내 디자인 조명 브랜드 '일광전구'는 같은 기간 이구홈 오프라인 매장에서 올린 매출의 약 78%가 외국인 고객에게서 나왔다.

29CM는 각 매장의 입지와 주요 방문 연령층, 쇼핑 수요를 분석해 상권별 고객 특성에 맞춘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은 조리도구와 식기 등 주방용품을 강화해 지난 10월 거래액이 전월 대비 64% 이상 증가했다.

성수 2호점은 국내외 디자인 문구와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를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특히 일본 생활용품 브랜드 로프트(LOFT)와 협력하고 현지 문구 브랜드 상품군을 확대해 아날로그 문구를 취미로 즐기는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숲점은 인근 주민과 나들이객의 수요를 고려해 패션잡화와 반려동물 용품을 강화하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팝업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29CM 관계자는 "방한 관광객의 쇼핑 관심사가 패션·뷰티를 넘어 홈·리빙으로 넓어진 가운데 입점사의 약 70%가 국내 브랜드인 이구홈 매장이 한국 디자인 브랜드와 해외 고객을 연결하는 K-라이프스타일 쇼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해 매장을 확대하며 축적한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출점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고객이 다양한 국내외 홈·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오리온, 中 등 해외법인 성장… 실적개선 이어져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227억… 11.3%↑
"전 법인, 주력제품 수요가 공급 넘어서"


오리온 신사옥 전경.

오리온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법인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원부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한국과 베트남 법인의 수익성은 다소 둔화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법인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하며 전체 실적을 뒷받침했다.

16일 오리온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92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9.4% 늘어난 1509억원을 기록했다. 1~9월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7467억원, 44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14.9%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70.6%에 달했다.

법인별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중국 법인은 간식점과 이커머스 등 고성장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감자스낵과 파이, 젤리 등의 판매를 늘리며 매출 3840억원, 영업이익 73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8%, 9.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스윙칩은 올해 1~9월 누적 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 오리온 중국 법인에서 단일 브랜드가 연간 누적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오!감자에 이어 두 번째다.

러시아 법인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2%, 47.9% 증가한 1092억원, 173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후레쉬파이와 참붕어빵, 젤리 등 제품군을 확대하고 체인스토어와 이커머스 전용 제품을 늘린 전략이 주효했다.

반면 한국과 베트남 법인은 원가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 법인은 황치즈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판매 호조로 매출이 4.9% 증가한 2966억원을 기록했지만,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4.3% 감소한 403억원에 그쳤다. 베트남 법인도 파이와 젤리, 쌀과자 판매 증가로 매출이 8.4% 늘어난 1306억원을 기록했으나 원부자재 가격 부담에 영업이익은 0.8% 줄어든 211억원을 나타냈다.

인도 법인은 제품군 확대와 북동부 지역 중심의 영업 전략을 바탕으로 판매물량이 3분기 52.4%, 1~9월 누적 기준 68.7% 증가했다.

오리온은 4분기에도 해외 법인별 주력 제품과 고성장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은 감자스낵과 젤리 판매를 늘리고 간식점과 이커머스 채널을 공략한다. 베트남은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입점 및 진열 면적을 확대하고, 러시아는 참붕어빵과 젤리의 유통망을 넓히는 한편 대형 유통업체 전용 제품을 강화한다.

생산능력 확충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주력 제품의 생산라인 증설을 마무리하고 4분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한국의 포카칩과 카스타드, 베트남의 카스타드와 젤리, 러시아의 참붕어빵, 인도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생산라인이 대상이다. 중국은 스윙칩 생산라인 가동률이 150%를 넘어섬에 따라 내년 3개 라인을 추가 증설해 생산능력을 약 90%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 투자도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4600억원을 투입하는 진천통합센터 건설이 공정률 70%를 기록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2400억원 규모의 트베리 신공장을 건설 중이다. 베트남은 하노이 3공장과 다낭물류센터를 4분기부터 가동하고, 내년에는 호찌민 4공장 착공을 추진한다.

오리온 관계자는 "전 법인에서 주력 제품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가운데 4분기부터 증설된 생산라인의 가동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최대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실적 성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스타벅스 "헬로키티 음료 만나보세요"

19일부터 2차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헬로키티 토피 초콜릿' 등 출시 예정


스타벅스는 오는 19일부터 2차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타벅스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가 글로벌 캐릭터 헬로키티와 손잡고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을 선보인다. 협업 음료와 디저트부터 굿즈까지 상품군을 확대해 연말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스타벅스는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헬로키티 협업 음료와 푸드, 굿즈 등을 선보이는 2차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표 협업 음료는 '헬로키티 토피 초콜릿'이다. 진한 초콜릿에 토피 넛 시럽을 더하고 휘핑크림 위에 헬로키티의 상징인 빨간 리본을 올렸다. 푸드 부문은 '헬로키티 마카롱'은 화이트 가나슈와 사과잼을 넣었으며, '헬로키티 애플시나몬 쿠키 틴 세트'는 애플잼과 시나몬을 더한 쿠키를 틴 케이스에 담았다.

협업 굿즈는 두 차례에 걸쳐 출시한다. 오는 19일 머그와 텀블러, 트리 등 10종을 먼저 선보이고, 다음 달 2일에는 머그와 토트백 등 12종을 추가한다.

/신원선 기자

갤러리아百, 22일까지 '갤올라잇' 행사

갤러리아백화점은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쇼핑몰 '갤러리아몰'에서 쇼핑 행사 '갤올라잇'을 진행한다.

먼저 특가 행사 '갤프라이스'를 통해 가전·뷰티·패션·리빙·식품 등 주요 카테고리의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쿠폰 적용 대상 상품은 행사 전용 쿠폰을 활용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장바구니 쿠폰 2종도 제공한다. 패션·뷰티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2% 할인 쿠폰과 전 카테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8%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브랜드별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 참여 브랜드에 따라 구매 적립금이나 추가 할인 등을 제공하는 '브랜드 리워드'를 운영한다. 혜택 내용은 브랜드별로 상이하다.

/김서현 기자

연구원 대신 AI가 짰다… 요즘 뜨는 식품의 비밀

식품업계, AI 도입 사활

CJ제일제당 '푸드 AI 360'으로 미각 변화 포착해 즉각 제품화
피지컬 AI 기반 자율제조 구축도
프레시지, 초기 개발단계 대폭 압축
배스킨라빈스-제미나이 신메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에서 진행된 AI Factory 지원사업 킥오프 행사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윤병동 원프레딕트 대표, 성민수 아이벡스 대표, 강민수 CJ제일제당 식품생산지원실장, 김지웅 CJ제일제당 한국생산본부장. /CJ제일제당

식품업계가 신제품 기획과 원료 배합비 산출부터 생산 설비 제어 및 품질 관리까지 제조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식품업계의 AI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입맛을 겨냥한 레시피를 짜는 것은 물론, 최적의 원재료 배합비를 산출하고 공장의 설비 제어까지 도맡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과거 연구원의 직관과 수개월에 걸친 시행착오에 의존하던 식품 산업이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DX)의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AI의 손길을 거친 떡볶이와 아이스크림이 시중에 풀려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해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AI가 조합한 햄버거가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대표 메뉴보다 높은 맛 점수를 받아내기도 했다. 나아가 제조 현장의 설비 고장을 미리 감지하고 작업자 안전까지 챙기는 지능형 공장 구축으로까지 보폭을 넓히며 식품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CJ제일제당은 독자 구축한 '푸드 AI 360' 시스템을 가동해 트렌드 포착부터 상품 기획, 시장 반응 예측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데이터로 소비자의 미각 변화를 읽어내 즉각 제품화에 옮기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흥행작인 '비비고 연어 스테이크'는 단백질 섭취원이 육류에서 수산물로 확장되는 흐름을 AI가 포착해 탄생했으며,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판매 140만 개를 돌파했다. 지난 6월 출시된 '말차 햇반' 역시 AI의 트렌드 분석 결과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간편식 전문기업 프레시지는 2024년 AI를 접목해 식혜맛·고구마 떡볶이 등 파격적인 조합을 내세운 '황금레시피 떡볶이' 5종을 출시했다. 15억 건에 달하는 누적 데이터를 학습시킨 덕분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던 시장 조사 및 관능평가 등 초기 개발 단계를 단 2시간 30분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배스킨라빈스 또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와 협업해 신메뉴를 개발한다. AI가 특정 색상에 어울리는 과일과 맛의 조합을 제안하면, 연구진이 이를 실제 아이스크림으로 구현해 내는 방식이다.

이같은 흐름은 연구실을 넘어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식품업계 대표 주자로서 산업통상부의 'AI 팩토리' 지원사업에 합류해 피지컬 AI 기반의 자율제조 기술 확보에 나섰다. 원프레딕트, 아이벡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 손잡고 F&B 분야의 자율제조 및 통합 예지보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공정과 설비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분석해 공장이 스스로 제어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둔다.

사내 업무 전반에 AI를 이식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풀무원은 임직원이 직접 맞춤형 AI 도구를 만들어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내 AI 전환(AX)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향후 시장 분석부터 기획·생산·물류·공통 업무까지 AI 에이전트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업계가 AI 도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갈수록 짧아지는 트렌드 주기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개발 비용 때문이다. 급변하는 소비자 취향을 제때 공략하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수많은 원료 조합을 일일이 배합해 시제품을 만들고 관능평가를 거치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때 AI는 방대한 시장 데이터와 연구 기록을 순식간에 분석해 성공 확률이 높은 후보군을 추려줌으로써 연구진의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제조 공정에서의 효용성 역시 뚜렷하다.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장을 예측해 라인 정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불량 감지로 폐기율을 낮춰 생산성·품질·안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가 식품산업의 혁신을 앞당기는 촉매제임은 분명하다"며 "데이터를 기반한 제조 역량이 식품업계의 승패를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무조건적인 양산 성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데이터상에서는 완벽해보이는 배합이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을 빗겨간 결과물이 탄생할 수 있고, 실험실에서의 소량 생산한 것이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때에는 맛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더후가 포시즌스 호텔 서울 더 스파에서 '더후 환유 로얄 헤리티지 스파 리추얼(THE WHOO Imperial Youth Royal Heritage Spa Ritual)'을 진행했다.

LG생활건강 '더후'

"환유·산삼 생명력 스파로 경험하세요"

LG생활건강의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가 포시즌스 호텔 서울 더 스파에서 '더후 환유 로얄 헤리티지 스파 리추얼(THE WHOO Imperial Youth Royal Heritage Spa Ritual)'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 더 스파에서 열렸다. 고객이 더후 최고급 라인 '환유(Imperial Youth)'의 로열 헤리티지와 산삼의 생명력을 전문 스파 테라피로 체험하도록 기획했다.

2006년 처음 출시한 환유는 산삼을 대표 성분으로 함유한 더후의 하이엔드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대표제품은 20년 간의 산삼 연구로 탄생한 항노화 성분 '산삼 진세노사이드™'와 '세노-포스TM(Seno-Force™)'를 함유한 환유고이다.

환유 스파 리추얼은 산삼의 생명력을 사운드 테라피로 경험하는 진생 버블 베일 단계부터, LG 프라엘의 써마샷과 환유 스킨케어의 시너지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리추얼(60분), 임페리얼 유스 디저트 제공 등으로 구성했다. /이세경 기자

HLB테라퓨틱스, 신경영양성각막염 치료제 임상3상 실패

'RGN-259' 1차 평가변수 톱라인 결과
위약군 간 통계적 유의성 확보 못해

HLB테라퓨틱스는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ReGenTree)가 진행한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 'RGN-259'의 미국 임상3상(SEER-2) 톱라인 결과, 1차 평가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HLB테라퓨틱스는 지난 13일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한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부터 1차 평가변수에 대한 톱라인 결과를 전달받았다.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1차 평가변수인 투여 4주 후 완치율에서 RGN-259 투약군과 위약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경영양성각막염(NK)은 각막 신경 손상으로 각막 감각과 자연 치유 능력이 저하돼 궤양이나 천공,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희귀 퇴행성 안과 질환이다. RGN-259는 인체 조직과 눈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재생 촉진 단백질 '티모신 베타4(Thymosin β4)'를 주성분으로 하는 점안제 형태의 희귀의약품 신약 후보물질이다. 각막 상피세포의 이동을 유도해 상처 회복과 조직·신경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다중 기전을 기반으로 개발돼 왔다.

앞서 RGN-259는 미국 임상 3상(SEER-1)에서 전체 피험자 기준 1차 평가변수 충족에는 실패했으나, 하위 분석에서 RGN-259 투약군 10명 중 6명(60%)이 완치된 반면 위약군은 8명 중 1명(12.5%) 완치에 그치며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회사는 이러한 초기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후속 임상 3상인 유럽(SEER-3)과 미국(SEER-2) 임상을 이어가며 상업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발표한 유럽 임상 3상에서 위약군의 예상보다 높은 치료 반응으로 1차 평가변수 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이번 미국 임상 3상마저 고배를 마시며 신약 허가 및 기술이전 일정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HLB테라퓨틱스는 수주 내 CRO로부터 전체 임상시험 데이터를 공식 수령할 예정이다. 이후 1차 평가변수에 대한 세부 결과를 비롯해 2차 평가변수와 하위 그룹별 치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임상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기홍HLB테라퓨틱스 대표이사는 "이번 톱라인 결과에서는 1차 평가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전체 임상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치료 효과와 관련된 세부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 방향과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알테오젠

月 1회 투여 비만치료제 3주 만에 체중 55% ↓

알테오젠은 14~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비만학회 연례 학술대회 'ObesityWeek 2026'에서 초장기 지속형 비만치료제 ALT-M5 계열물질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ObesityWeek'은 위고비의 장기 체중 감량 효과를 평가한 임상 3상(임상명 STEP 5)와 마운자로의 임상 3상(임상명 SURMOUNT-3) 등 주요 비만치료제의 임상 결과 등이 발표되었던 비만 관련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학회다.

알테오젠은 단백질의 특정 위치에 약물을 선택적으로 접합하는 기존 기술을 한층 발전시켜, 복수의 활성분자를 결합하고 약효 지속기간을 늘리는 초장기 지속형(ultra-long-acting) 플랫폼을 개발했다.

지난 9월 국제특허출원(PCT)을 완료한 이 플랫폼의 첫 파이프라인이 월 1회 투여를 목표로 하는 비만치료제 프로젝트 ALT-M5다.

비만 마우스(DIO)를 이용한 약력학(PD) 평가에서는 ALT-M5B418을 주 2회 피하 투여했을 때, 21일째에 투여 전 대비 체중이 55.3% 감소하며 대조군 레타트루타이드의 체중 감소율 49.0%과 터제파타이드의 21.0%를 뛰어넘었다. 또한 투약 종료 2주 후 체중 재증가율은 ALT-M5B418이 34.7%, 레타트루타이드가 44.2%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애경산업 'K-컬처 페스티벌' 4200명 방문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 등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애경산업이 지난 13일 서울 홍대 걷고 싶은거리 만남의광장에서 개최한 'K-컬처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일의 즐거움을, 오늘의 축제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화장품과 생활용품으로 일상을 함께해 온 애경산업의 브랜드를 공연과 놀이로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 당일에는 약 4200명의 시민이 현장을 찾아 브랜드 체험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공연, 아티스트 초청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브랜드별 특색을 살린 체험 부스부터 랜덤 플레이 댄스, 스트릿 노래방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는 도심 속 문화 축제로 펼쳐졌다. /이세경 기자

알에프바이오, 美 FDA 기준 제조시설 등록

스킨케어라인 제품 3개 리스팅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알에프바이오(RFBIO)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기준에 따라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사 스킨케어 라인 '유스필 스킨 모이스쳐(YOUTHFIL SKIN MOISTURE)'의 리바이브·밸런스·하이드라 세럼(REVIVE·BALANCE·HYDRA SERUM) 3개 제품 리스팅도 마쳤다.



유스필 스킨 모이스쳐 '리바이브 세럼'.

MoCRA는 2022년 12월 제정된 법으로, 1938년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정 이후 미국 화장품 규제의 가장 큰 개편으로 꼽힌다. /이세경 기자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일 시 2026년 11월 18일(수) 14:00~17: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이경전
-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김지섭
-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한영섭
- LG유플러스 AI R&D랩장



박기철
-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현창호
-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조경태** 국회의원 **이우용** 한국SW · AX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 업종별 AI/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
강연	14:50~15:20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 AI 전환의 허와 실
	15:20~15:50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
	15:50~16:20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랜드
	16:20~16:50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팀장 :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고려아연, 겨울철 이웃에 따뜻한 손길

고려아연이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800만원을 기부하고 임직원들과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서울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서 '2026 추운 겨울 건강하게 극복하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려아연



토요타코리아, 반려견과 함께 고객 소통 강화

토요타코리아가 반려견을 매개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와 브랜드 경험 확대에 나섰다. 전국 딜러 전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반려견 문화 캠페인을 전국 단위 고객 커뮤니티 행사로 확장하며 기존 고객과의 유대감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토요타코리아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에서 '2026 토요타 바른독(DOG)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요타코리아



유진그룹, 22년째 이어온 수험생 응원 '훈훈'

유진그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자녀를 둔 임직원들에게 응원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16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수험생 응원은 지난 2005년 계열사인 유진기업에서 시작돼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유진기업은 매년 수험생 자녀를 둔 임직원들에게 응원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를 이어오고 있다. /유진그룹



삼천당제약, 소아당뇨 환자에 장학금 5000만원

삼천당제약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제16회 당뇨병 학술제'에서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장기간 꾸준한 혈당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학업, 일상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삼천당제약

인 사 ◆**경찰청** ◇ 치안정감 전보 ▲ 이재영 경상남도경찰청장 ▲ 이종원 경찰청(전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더투데이** ◇ 신임 ▲ 편집총괄 전무 한민

부 음 ▲서만수씨 별세, 서영태(경남 창원시 공보팀장)씨 부친상 = 16일,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55-214-1900

▲진형구(전 대전고검장)씨 별세, 한동훈(국회의원)씨 장인상 = 1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조문은 16일 오후 2시부터 가능),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CJ문화재단, 창작자 꿈 키운 20년… K-컬처 성장 밑거름

20년간 문화예술 분야 917억 후원
인디 뮤지션 85팀·영화인 215명 육성
뮤지컬 77편 발굴해 25편 상업화

CJ문화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창작자 지원 성과와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사례를 공유했다.

CJ문화재단은 지난 14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한국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재단의 사회공헌 철학과 주요 창작자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K-Culture와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다. 2001년 출범한 한국예술경영학회는 정기 학술행사와 문화예술 정책 관련 논의를 이어온 학술단체다.

기조발표에 나선 민희경 CJ사회공헌추진단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인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를 바탕으로 한 창작자 발굴·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대중문화의 다양성 추구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그룹 인프라를 활용한 성장 지원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민희경 CJ사회공헌추진단장이 _2026 하반기 (사)한국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_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CJ문화재단

CJ문화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20년간 누적 917억원을 후원했다. 인디 뮤지션 지원사업 '튠업'을 통해 멜로망스, 카더가든, 한로로 등 85팀을 배출했으며, 영화 창작자 지원사업 '스토리업'에서는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 215명을 지원했다. 뮤지컬 창작자 지원사업 '스테이지업'은 77편의 작품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25편이 상업 공연으로 이어졌다.

스토리업 출신으로는 첫 상업 장편영화 '살목지'로 324만 관객을 동원한 이상민 감독과 '불한당', '굿뉴스'를 연출한 변성현 감독 등이 있다. 스테이지업 지원작 중에서는 한국뮤지컬어워즈 3관왕에 오른 '라흐헤스트'와 작품상을 받은 '홍련' 등이 공연 성과를 거뒀다.

민 단장은 "CJ문화재단은 인디 뮤지션, 영화 창작자, 뮤지컬 창작자 등 잠재력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의 창작자를 지원하며 문화예술 다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생태계 설계자 역할에 주력해 왔다"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창작자를 문화산업 현장으로 잇는 성장 사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진, 유기견 돌봄에 따뜻한 손길

임직원 15명, 유기견 돌봄 봉사
사업 매출 일부 기부로 나눔 실천

한진이 유기견 돌봄 봉사활동을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한진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Love Connect(러브 커넥트) 캠페인' 일환으로 동물구조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논산센터를 방문해 유기견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2022년부터 지속해서 후원 관계를 이어오며 연속성을 다져온 비글구조네트워크와 함께했다.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 위치한 논산센터에서 진행된 봉사에는 한진 임직원 15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센터 내 유기견 및 실험 구조견들의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기 위한 산책 프로그램을 비롯해 영양 간식 급여와 교감 활동, 견사 내·외부 정비 및 환경 미화 활동 등을 펼치며 동물복지 향상과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한진은 봉사활동과 더불어 사업 매출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조성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전달하며 구조견들의 치료와 보호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더했다. 사업 수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동물복지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ESG 활동 모델을 실천한다는 취지다.

한진 관계자는 "2022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비글구조네트워크와 올해도 뜻깊은 돌봄 활동을 이어가며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위기임산부, 독서 소외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는 'Love Connect 캠페인'을 지속 확대해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앤컴퍼니, 가족과 소통·화합의 장

임직원·가족 750여명 참여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임직원 가족과 회사의 소통을 확대하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 7일과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와 대전 유성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에서 '2026 한국앤컴퍼니그룹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과 가족 180가족, 7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One Goal, One Team! 잠든 Technoplex·Technodome을 깨워라!'를 주제로 가족들이 회사 곳곳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발견과 도전, 소통, 창작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마련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회사의 공간과 문화를 접하도록 했다.

판교 테크노플렉스에서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브랜드 전시를 비롯해 가족 협동 게임, 페이스 페인팅, 가족사진 촬영 등을 운영했다. 썬캐처와 그림 키링, 캘리그래피 소원 액자 만들기 등 창작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대전 한국테크노돔에서는 연구소 특성을 살린 시험실 투어를 통해 가족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연구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양 사업장에서는 5개 핵심 미션을 완료한 가족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깜짝 선물을 증정하는 등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했다. 가족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성운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2026 패밀리데이'에서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교촌,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응원

장학생 36명 초청 교류 행사
6년간 281명에 8.15억 후원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 본부에서 '제6회 자립준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의 꿈' 장학생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학생 36명과 교촌에프앤비, 초록우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2027년 달력에 새해 다짐과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공유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개월간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 '교촌으로 잇닿다'에 멘토로 참여한 장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했다. 장학금과 자립 지원사업을 통해 이룬 학업 및 자기계발 성과도 공유했다.

행사 이후에는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교촌의 플래그십 스토어 '교촌필방'을 방문해 브랜드 공간과 메뉴를 체험하며 네트워킹을 이어갔다.

교촌의 자립준비 지원사업은 2021년 초록우산과 함께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억6000만원을 후원해 장학생 50명에게 총 1억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6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장학생 281명, 총 8억1500만원이다.

장학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마음채움 프로젝트'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교촌의 바르고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나눔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소진공,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첫 인증에 교육부 장관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워크숍'에서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은 능력중심의 인재 채용과 인적자원개발·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인증기관 가운데 인적자원개발 역량이 뛰어난 최우수기관 4곳과 정부시책을 적극 반영한 우수기관 1곳을 별도로 선정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올해 공공부문 인증기관은 총 40곳으로, 이 중 소진공을 포함한 신규 인증기관은 11곳이다. 소진공은 최초 인증과 동시에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신규 인증기관 중 유일한 준정부기관이다.

소진공은 이번 심사에서 지역인재, 고졸,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 전 부문에서 정부 권고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 점을 인정받았다.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24년 74.6%, 2025년 65.5%로 2년 연속 정부 권고기준(35%)을 크게 웃돌았다. 소진공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춘천·진주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운영해왔다. 참여 대학도 2024년 5개교(12회)에서 2025년 10개교(15회)로 확대했다.

/김승호 기자


김호연 작가의 밀리언셀러 소설이 공연으로 재탄생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예매하기
2026.4.3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모두가 '모두의 K-GX'를 응원할 수 있도록



서 선 미의 기후에세이

튀르키예 안탈리아가 뜨겁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총회 참석을 앞두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지구적 녹색대전환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가슴 뛰는 언어다.

10월 정부는 K-GX 정책을 발표했다. 2026년에서 2035년까지 정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등 약 10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전략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되는 갈래는 모두의 K-GX다. 탈탄소 산업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 약속의 맥락이다.

11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정혜경 의원은 신성장동력 K-GX와 지속가능한 K-GX 예산은 모두 증액되었는데, 모두의 K-GX 예산은 크게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기후보험은 저희가 꼭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획처를 충분하게 설득을 못 해가지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답변이다. 국회가 증액해준다면 기후보험의 취지를 살려 기후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장관들의 대답은 이렇게 이어진다.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기후보험은 기후재난으로 일을 멈추게 된 노동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국회가 발간한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기후보험에 대해 짚었다. 예산이 연구용역비 3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기후대응기금이 기후부로 넘어오는 2026년부터 기후보험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공공건설근로자 시범사업을 하라는 요구를 적시했다.

1년이 지났다. 기후부는 2027년 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요구했다. 야외 노동자 약 1만 3300명이 폭염 등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하루 5만 원씩 최대 14일치 소득을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적격성 심사에서 연거푸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정부안에 담긴 예산은 0원이 되었다.

기획예산처는 1·2차 심사에서 근거 법률이 발의 단계라는 점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지방비 부담 문제,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등을 지적했다. 지난 8월 국회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을 통과시켜 기후보험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적어도 법률이 발의 단계라는 사유는 해소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보완해야 했을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은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쟁점이며, 관계부처 협업 등의 문제 역시 주관부처가 선제적으로 촘촘하게 준비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기후대응기금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금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K-GX와 직결된 기존 기금 사업은 삭감됐고,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사업도 5.3% 줄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를 '재정 주머니 옮기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장관은 공을 국회로 넘겼다. 예산심사가 시험대다. 기후 취약계층의 삶을 조금은 살피고, 줄어든 정의로운 전환 예산을 되살리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여야는 이미 합의해 기후적응법을 만들고 기후보험의 근거를 남겼다. 또 국회의 정부에 대한 감사와 요구를 기록한 문서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기후보험에 대한 요구는 명확히 담겨 있다.

K-GX가 진실로 '모두의' 전환이기를 원한다. 네이밍이 가진 그 선명한 매력은 일부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의 한복판에서 폭염의 빛살과 혹한의 눈보라를 맞고 있는 '모두'에게 향해야 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뿌리째 흔들린 시험 '공정성'… AI 활용 부정행위 대비해야



기자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A씨가 전날(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AI(인공지능) 장비' 사용을 실토하면서, 우리 사회 공정성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던 '시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놨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해 전송하고 AI가 이를 풀어 답안을 수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객관식인 1차 필기 시험은 그렇다 쳐도, 주관식인 2차 필기 시험도 AI를 활용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음이 증명됐다.

A씨가 수험장 감독관들에게 비교적 잘 보이는 자리인 2열 중앙(1차 시험), 1열 중앙(2차 시험)에 앉은 것이 드러나면서, '육안'에 의지하는 기존의 시험 관리·감독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졌다. 실체는 있지만 잘 보이진 않는 셈이다.

수년씩 공부한 사람도 절절매는 어려운 전문직 시험을 신속 정확하게 풀어내는 AI의 비상함에 감복하다가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AI의 힘을 빌려 시험을 통과했을까'란 두려움과 짜증이 밀려들었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시점도 절묘하다. A씨가 부정행위를 실토한 시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5일 전이다. 착하고 성실하게 머리 속에 학습한 내용을 욱여넣어가며 공부한 학생들은 차라리 이 소식을 듣지 않는 게 좋을 듯 하다.

정부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수능 수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겠다는데, 초소형 카메라가 꼭 안경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결합한 '부정행위 세트'가 버젓이 판매중이다. 16일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장에 나온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처럼 수험장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도 법령을 정비한 이후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하다.

'안 들키면 장땡'이라는 독약이 사회에 퍼지는 건 순간이다. 국가 공인 시험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관련 부처의 선제적 대응은 부족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선량한 수험생들의 몫이다.

교육부는 당장 19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수험생·감독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AI 시대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사회적인 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th728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음 10월 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60년생** 밀어 부치면 화를 입기 십상입니다. **72년생**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합니다. **84년생** 고생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습니다.

소 **49년생** 인내를 가지도록 하세요. **61년생**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73년생**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85년생** 지레 겁먹고 체념하지 마세요.

호랑이 **50년생** 겸허한 마음과 근면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62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74년생**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세요. **86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평탄한 길을 왔지만 곧 시련이 찾아옵니다. **63년생** 윗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눈앞의 욕심에 현혹되지 마세요. **87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 하세요.

용 **52년생** 어긋남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64년생** 조그마한 일에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76년생** 적당 주의는 금물입니다. **88년생** 중의 길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뱀 **53년생**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것이 길합니다. **65년생** 성의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세요. **77년생** 바라는 일이 처음엔 뜻처럼 되지 않습니다. **89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합니다.

말 **54년생** 남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세요. **66년생** 행운이 찾아 올 것입니다. **78년생** 남보다 앞장서려 하지 마세요. **90년생**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양 **55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67년생** 처음에는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79년생** 소심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91년생**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야 합니다.

원숭이 **56년생**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입니다. **68년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생** 만족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길합니다. **92년생** 일에 장애가 많아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닭 **57년생**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69년생** 지금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81년생**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세요. **93년생** 상대방과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길합니다.

개 **58년생** 나서지 말고 가만히 참으세요. **70년생**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82년생** 묵묵히 물러나 지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94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흉합니다.

돼지 **59년생** 흉한 인간관계는 빠르게 정리하세요. **71년생** 귀하의 운은 쇠퇴기입니다. **83년생** 앞길에 어려움이 생겨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95년생** 일처리를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김상회의 四季

기도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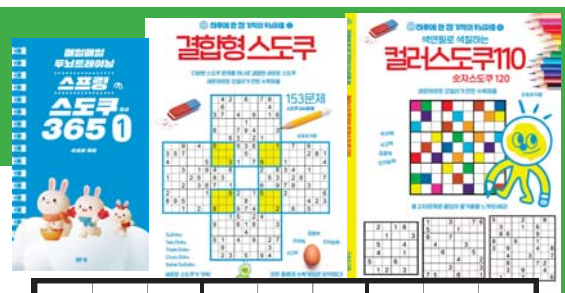
기도에도 법칙이 있을까? 어떻게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 기도 발원이 힘을 발휘하고 기도의 가피를 극대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서 나온 말일 듯도 싶다. 종종 듣는 얘기지만 그렇게 기도해도 효험이 없네 하면서 뒷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본 까닭이다. 지구상 각각의 종교마다 기원과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다. 자신의 본성, 존재의 실상 등을 찾기 위한 구도적 목적이나 수행의 성취를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복성 기도는 기피하는 경향을 본다. 기독교의 경우, 정확하게 파악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자가 느끼는 기독교의 기도는 선주후사(先主後私), 즉 나의 바람이 나 기원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키는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구한 뒤 자기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불가의 기도는 작게는 개인의 발원이 무탈하게 이루어지도록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기를 바라는 바가 있는 것이며 크게는 단순한 소원을 넘어 깨달음이나 중생 구제 같은 대승적 목표를 세우고 이뤄나가는 의지의 실천이자 발현이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어떻게 기도해야 말 그대로 기도 성취를 볼 수 있을까? 그러한 기도의 법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은 기독교라 하더라도 어떤 종파는 통성기도나 방언 기도가 특징인 곳도 있고 어떤 교파는 조용히 묵상하며 공동체 신행 생활을 영위하는 곳도 있다. 개신교의 어떤 목사는 기독교적 관점의 기도 법칙으로서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최소 3시간의 온 힘을 기울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임계점이라고 보는 듯했다. 어느 종교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성이면 감천"이 기도의 공식이자 법칙이며, 도가나 불가에서 정성으로 마음을 모으면 기운이 모여져 원하고 뜻하는 바가 응한다는 믿음이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2		6	8	3	1
			9	7				
		4		1	3	2		
5	9							
	1						5	
							8	6
		9	8	6		5		
				9	4			
4	6	8	1		5		2	

					7		2	
8		5	2		9			
		2				9	1	
4	5			2			8	
			7		3			
	9			5			4	3
	8	7				1		
			6		8	4		2
	2		3					

metro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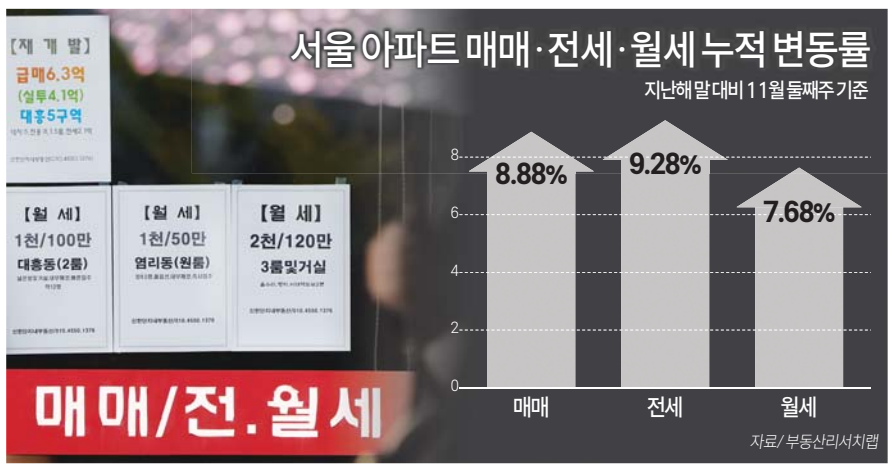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6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파트 매물 늘었지만 전월세난 심화… 내년 집값 변수로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돌파
매물량만으로 가격 예측 어려워
전세가격 전년대비 9.28% 증가
주거비 부담에 매수전환 가능성도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건을 넘어섰지만 임대차 시장이 내년 집값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 관망하던 실수요자의 매수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8만145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말 6만1039건에서 3분기 말 7만209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의 매물 증가와 가격 상승폭 둔화를 시장 안정 징후로 제시했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리서치랩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말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7886건이었지만 실거래가격은 2.08% 올랐다. 반면 지난 2022년 4분기에는 매물이 5만671건으로 이보다 적었는데도 실거래가격이 13.25%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는 "매물량만으로 상승과 하락을 판단하기보다 가격대별 매물 구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물이 증가한 것은 거래가 위축된 영향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3915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2.4% 감소했다.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팔리지 않은 물건이 시장에 남아 있는 셈이다. 집주인이 호가를 낮춰 매도할지, 매물을 거두고 보유로 돌아설지에 따라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전월세 부담이다. 11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9.28% 올랐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2.1%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윤지해 부동산평론가는 이러한 주거비 상승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이 커질수록 자금 여력이 있는 임차인은 매수 전환을 검토하게 되고, 이 같은 수요가 집값 하락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대출 한도와 이자 부담이 커지면 매수 전환 역시 제한될 수 있다고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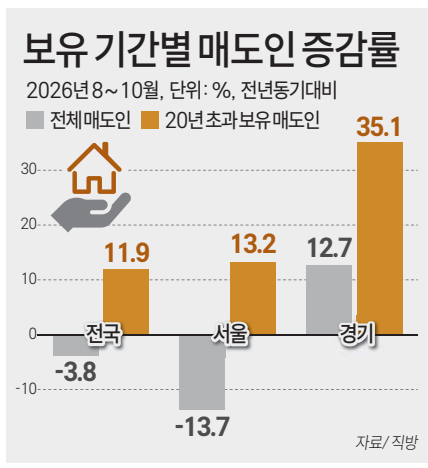
문제는 전월세난이 내년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4.5% 올라 올해 전망치(3.6%)보다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착공 감소에 따른 입주 물량 축소와 매수를 미룬 임차 수요를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임대차 매물 증가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 약 6000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늘어난 매물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지에 따라 내년 매매시장 안정 여부도 달라질 전망이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부동산 매도 줄어도 '장기보유자'는 더 팔았다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3개월간 감소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 13.2% 증가
5년 이하 보유 매도인은 43.2% 줄어



서울에서 아파트·빌라·오피스텔·상가 등을 판 사람이 줄어든 가운데 20년 넘게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서울의 전체 매도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감소했지만,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은 13.2% 증가했다. 반면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매도인은 43.2% 줄어 보유기간에 따라 매도 흐름이 엇갈렸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직방의 보유기간별 매도인 통계에 따르면, 올해 8~10월 전국적으로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등을 판 사람이 15만52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8% 감소했다. 이 중 20년 넘게 보유한 뒤 판 사람은 1만3162명으로 11.9% 증가했다. 전체 매도인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5%에서 올해 8.7%로 높아졌다.

이번 통계는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도인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기간 접수돼 등기가 완료된 사건 가운데 매도인에게 잔여 지분이 없는 경우를 집계했다.

서울에서는 전체 매도인 감소와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전체 매도인 중 20년 초과 보유자의 비중은 13.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5년 이하 보유 매도인은 43.2% 감소했다. 특히 4년 초과~5년 이하 구간의 감소폭이 컸다. 10년 초과~20년 이하 구간에서는 보유기간별로 증감이 엇갈렸다. 장기보유자 전반의 매도가 늘었다기보다 20년 초과 보유자의 증가가 두드러진 셈이다.

경기는 전체 매도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8~10월 전체 매도인은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었고,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은 35.1% 증가했다. 전체 매도인 중 20년 초과 보유자의 비중은 6.6%에서 8.0%로 높아졌다.

경기에서는 10년 초과~20년 이하 보유 구간에서도 매도인이 증가했다. 반면 5년 이하 보유 매도인은 14.0% 줄었다.

전국의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 증가는 서울과 경기가 이끌었다. 두 지역에서 늘어난 인원이 전국 증가 인원을 웃돌면서 나머지 지역의 감소분을 상쇄했다.

김은선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장기보유자의 매도 증가에 대해 "누적된 자산가치를 실현하거나 자산 구성을 조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며 "최근 취득한 소유자는 취득가격 대비 현재 가격, 대출 상환액, 대체 주택 마련 비용 등에 따라 매도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9000가구 공모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내년 착공 추진
연말까지 10개 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기간 최적화 평가항목 20점 신설

민간건설사와 함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공급기간 단축 방안을 평가한다. 연말까지 공모하는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9065호 규모 사업에 민간의 기술과 공정관리 역량을 반영해 내년 착공을 추진한다.

LH는 총 10개 블록, 6개 패키지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추정 민간사업비는 총 2조5000억원 규모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6개 블록, 3개 패키지, 5782호 규모의 공모를 시행했다. 추정 민간사업비는 1조6115억원으로,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2027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패키지별로는 남양주왕숙2 A-10블록 1048호와 수원당수 B-1블록 326호, 수원당수2 B-6블록 484호를 묶어 공모했다. 이들 3개 블록의 추정 민간사업비는 총 5636억원이다. 고양창릉 A-3블록은 2374호, 5643억원 규모로 별도 공모했으며, 시흥거모 A-11블록 448호와 S-4블록 1102호는 총 4836억원 규모의 패키지로 구성했다. 나머지 4개 블록, 3283호는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위례업무 34 1000호, 남양주왕숙 S-20블록 1267호, 포천송우2 A1블록 916호, 성주성주 100호다. 추정 민간사업비는 약 9000억원이며, 이들 사업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공모부터 '사업기간 최적화' 평가항목 20점을 신설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 전 과정에 걸친 기간 단축 방안도 발굴·추진한다.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설계 조건도 추가한다. 하반기 공모부터 세대별 계절창고와 공용공간의 냉난방·제습 설비 시스템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전국 건설현장 폭설·한파 대비 안전점검

국토부, 2900여개 현장 사고 예방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겨울철 기온저하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전국 2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국토부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 폭설·강풍·한파에 대비하여 ▲외부 가설비계·지지대·울타리·안전난간 등 임시시설물 관리상태 ▲한중콘크리트 보온 양생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겨울철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등 공사현장의 안전·품질 및 시공관리상태를 점검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심지 지하굴착공사, 대규모 건축공사, 교량·터널공사 등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큰 고위험 건설공사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과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추락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및 재해 예방 조치 이행 여부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품질관리 미흡 및 부실시공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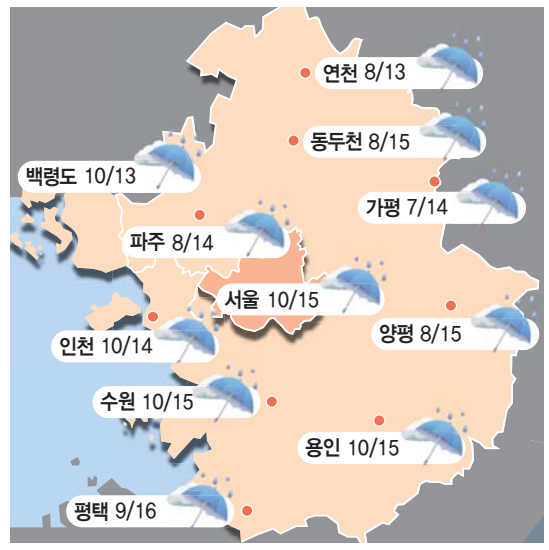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13 | 해짐 / 17:20

11월
17일 (火)
음력 : 10월 9일

수도권 날씨
10~15℃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불륜 파문' 젠슨 황, 엔비디아 복귀 모색…머스크도 지원 /사진 뉴시스

▲체코 프라하, 1989년 벨벳 혁명 이후 최대 시위…"공영 방송 독립수호"

▲10월 中 산업생산 4.8%↑·소매판매 0.4%↑…'둔화' 예상 하회

▲외출 금지령 비웃듯…日 오키나와 미군 범죄 잇따라

▲이스라엘, 10·7 공격 계획 가담 하마스 '라파 여단' 사령관 살해

▲우크라군 "밤사이 러 공장 3곳 타격"…헬기부터 군용 타이어 원료까지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36호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유통업계
온·오프라인
고객잡기 나서
L1



신제품 개발
원료배합까지
AI로 식품 만든다
L2

이웃의 오늘부터 청년의 내일까지, 함께 걷는 '따뜻한 연대'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금융투자협회

누군가에게는 문 앞에 도착한 한 끼가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된다. 누군가에게는 자기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인 돈이 처음으로 내일을 계획할 용기가 된다.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지는 순간,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런 의미다.

기업의 가능성을 찾아 자금을 잇는 금융투자업계는 이웃의 삶에도 저마다의 손을 보태왔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손길을 한데 모으는 일을 해왔다. 한 복지시설과 맺은 인연을 22년째 지키고, 전국 단위 김장 나눔에는 여러 업권이 함께하고, 청년 재무상담에는 증권사의 전문 인력과 지역 지점이 힘을 보탠다. 협회가 회원사의 참여를 끌어내고 복지기관이 현장의 필요를 연결하면서 개별 회사의 기부나 봉사로는 닿기 어려운 곳까지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1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의 기부축제인 제16회 사랑의 김치페어에서 직접 담그고 있는 금융투자협회 직원들.
2 금융투자협회 한사랑마을 봉사활동.
3 금융투자협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2000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전달했다.
4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경기 김포시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의 집'에서 김장 봉사와 나들이 동행 활동 등을 진행했다.
/금융투자협회





◆청년의 이름으로 쌓는 첫 자산 지원하는 금투협

보호시설을 떠나 생활비와 주거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시작한 청년에게는 당장의 지출을 감당하면서 목돈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 금투협이 지난해 시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청년이 일정 기간 자기 명의로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참여 증권사와 초록우산이 함께 청년 명의의 ISA에 매달 30만원씩 3년간 후원한다. 한 사람에게 1080만원이 쌓이는 구조로, 현재 참여 중인 청년 139명에 대한 전체 지원 예정액은 약 15억원이다.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잡은 데에는 의미가 있다. 독립 초기에는 주거와 취업 등 큰 결정을 연이어 내려야 한다. 일정한 금액을 자기 이름으로 꾸준히 모을 수 있으면 당장 필요한 돈과 앞으로 쓸 돈을 나눠 생각할 여지가 생긴다. 협회는 참여 증권사와 협력기관을 통해 계좌 운용 상황을 살피고 금융교육과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금융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다. 금투협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사업에 참여해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간 협의를 돕고 상담 지점을 지정하는 과정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월 16일부터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가 5개 도시의 12개 지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재무상담의 출발점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과 지출, 보유 자산을 파악하고 앞으로 필요한 돈을 가늠해보는 데 있다. 계좌를 통해 돈을 모으는 경험에 자기 형편에 맞게 재무계획을 세우는 기회까지 더해지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사회공헌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금융 이해력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일회성 NO…해마다 다시 찾는 이웃

금투협 임직원은 해마다 초에 봉사 일정을 받아든다. 어르신 배식과 도시락 배달, 제빵, 유기동물 보호 등 여러 활동 가운데 자신의 일정과 관심에 맞는 일을 골라 참여한다. '1인 1봉사 캠페인'이다. 협회가 참여할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면서 일손이 필요한 복지기관과 임직원이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만날 수 있게 했다.

여의도복지관에서는 매달 어르신 식사 배식과 청소를 돕는다.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어르신 도시락 배달은 올해로 18년째다. 지난 6월 24일에는 임직원들이 치료식 도시락을 배달하고 협회가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빵 나눔'에서는 임직원이 직접 빵을 만들고 협회가 회차마다 7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 김포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소망의집과는 2005년 결연을 맺었다. 이후 임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모아 후원하고 현장을 찾아 봉사하면서 올해로 22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협회 임직원들이 소망의집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들과 김장을 담갔다. 후원금 600만원과 생필품도 전했다.

초록우산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한사랑마을에는 2012년부터 봉사와 후원을 이어왔다. 올해 6월 17일에는 협회 임직원 30명과 회원사 14곳의 임직원 25명 등 55명이 함께 시설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협회는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렇듯 매달 돌아오는 배식 일정과 해마다 다시 찾는 시설은 협회 봉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준다. 임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면 복지기관에는 필요한 일손이 보태지고, 협회가 마련한 후원금은 시설이 돌봄을 이어가는 데 쓰인다.

자립준비청년 3년간 30만원 후원
자산관리 돕고, 금융이해력 높여

도시락 배달, 사랑의 빵 나눔 실천
소망의집 22년째 후원 등 정기봉사
일회성 넘어 이웃 돌봄 빈틈 메워

임직원 기부에 200% 매칭 출연
기금 조성 통해 취약계층 두루 지원

86개사 모여 16년째 김장 이어와
전국 복지시설·이웃에 김치 나눠
실질적인 도움 찾아 상생 실천 앞장

◆임직원이 십시일반…협회는 두 배 보태

금투협은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매칭그랜트로 임직원의 기부를 뒷받침한다. 임직원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기부하면 협회가 그 금액의 200%를 추가로 출연한다. 임직원이 1만원을 내면 협회가 2만원을 보태 모두 3만원이 쌓이는 방식이다. 조성한 기금은 복지시설 후원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한다. 임직원 개인의 기부를 협회의 꾸준한 후원으로 이어주는 구조다.

연말에는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의 학용품 지원에 2000만원을 배정했다. '사랑의 쌀 나눔'과 '사랑의 공부방' 사업에도 각각 1000만원을 배정해 추진한다. 쌀 나눔은 생활비 부담을 덜고, 공부방 사업은 아동·청소년이 읽을 책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협회는 하남 벧엘나눔공동체에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연말 사회공헌 과제에는 지역아동센터 학용품 지원과 한국심장재단을 통한 심장병 수술 지원도 포함됐다.

현장 기관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협회는 임직원의 기부와 기관 후원을 모아 이를 뒷받침한다. 협회는 이런 활동과 회원사의 사례를 사회공헌백서로 정리해 업계에 공유하고 있다.

◆86곳이 모인 여의도…16년 이어온 업계 공동 나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인 금융투자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에 양념을 버무렸다. 금투협이 주관한 '제16회 사랑의 김치 페어'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부동산신탁사, 증권 유관기관 등 86곳에서 약 1050명이 참여했다. 회사별 기부에 대표와 직원들의 일손이 더해졌다.

올해 행사에서 마련한 김치는 8만kg으로 지난해보다 5000kg 늘었다. 기부금은 약 3억9000만원이다. 참여 인원과 기부금, 김치 물량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김치는 초록우산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11년 시작한 김치 페어가 16년째 이어진 데에는 매년 여러 회사의 참여를 모으는 협회와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김치를 전하는 복지기관의 협력이 있었다. 경기 김포의 한 생활시설에서 임직원과 시설 종사자가 함께 김장을 담그는 일과 여의도에서 80곳 넘는 회사·기관이 힘을 모으는 일은 규모가 다르다. 두 활동 모두 겨울을 앞둔 이웃의 식탁에 필요한 것을 제때 보내기 위해, 해마다 같은 계절에 다시 사람을 모은다는 공통점이 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김치 페어에서 "각 회사의 정성과 임직원 여러분의 손길이 모여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의 방법을 꾸준히 발굴·실천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해 그 결실을 이웃과 나누어 신뢰받는 금융투자업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JTBC, 올림픽 중계권 계약 해지…"사업 지속 어려워" /사진 뉴시스

▲가을철 산불 예방… 속리산 탐방로 13곳 출입 통제

▲프로야구 FA 22명 공시…원태인·구자욱 시장에 나온다

▲한국 펜싱 남녀 사브르 대표팀, 카이로 월드컵 단체전 동반 우승

▲AI부터 가야금·힙합까지…英 리즈서 '2026 한국의 날'

▲뮤지컬 '광화문연가', 6개 도시 투어…21일 부산 시작